

연구보고 R464 / 2003. 12.

농가경제 불안정 실태와 요인 분석

황 의 식 부연구위원

문 한 필 초청연구원

연구보고 R464 / 2003. 12.

농가경제 불안정 실태와 요인 분석

황 의 식 부연구위원

문 한 필 초청연구원

연구 담당

황 의 식	부연구위원	연구총괄, 농가경제 불안정 개념 정립, 불안정성 계측, 농가경제 변동 요인 분석
문 한 필	초청연구원	농가경제 통계자료 정리 및 분석

머 리 말

우리나라 농업은 도하개발협상(DDA)과 무역자유화협정(FTA)으로 시장개방 폭이 더욱 확대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에 따라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다. 농가소득 안정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별 소득변동 정도를 가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외부충격을 받은 경험에 있다. 이 때 농가소득이 어떻게 변동하였는가를 보면 시장개방의 영향 정도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IMF 위기를 맞이하여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변동 추세를 농가별로 분석하고, 어떤 특징의 농가가 더 많이 소득이 감소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농가별로 일치시켜 소득변동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향후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비한 농가경제의 바람직한 경영상태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가 농가소득 안정정책과 경영개선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위해 자료 이용에 협조해 주신 통계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우리나라 농업은 도하개발협상(DDA)과 무역자유화협정(FTA) 등으로 농산물시장의 대외개방이 확대되는 등 시장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가경제의 불안정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IMF외환위기라는 외부충격으로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변동하였는가를 파악하고, 어떤 특징의 농가가 더 많이 소득이 감소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동일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표본 원자료를 농가별로 일치시켜 소득변동을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변형된 <평균-분산>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평균에 대응하여서는 성장률의 평균개념을 적용하고, 분산에 대응하여서는 농가소득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과의 차이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분석기간 동안에 농가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23.9%이고, 0~5% 감소한 농가는 15.8%, 그리고 0~5% 증가한 농가는 15.5%, 5~10% 증가한 농가는 16.0%, 마지막으로 10%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은 28.9%이었다. 농가소득 증감률이 큰 농가일수록 소득변동 정도가 큰 농가가 더 많았다. 농가소득 변동에는 농업소득 변동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기와 말기 2년 평균 농가소득규모별 농가분포를 보면, 농가소득 3천만원 미만의 농가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3천만원 이상의 농가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의 변동 폭이 큰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았다.

한편 농업소득 변동 추이를 보면, 농업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33.3%이었고, 0~5% 감소한 농가는 14.5%, 그리고 0~5% 증가한 농가는 14.9%, 5~10% 증가한 농가는 10.9%, 마지막으로 10%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은 26.3%이었다. 또한 변동 폭에서도 농가소득보다 농업소득이 더 심한 변동을 보이고 있는 농가가 더 많았다. 농가소득의 증감률에 의한 농가분포보다 더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농가의 농업소득이 심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변동에는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농가소득의 증감률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농업소득이 증감한 농가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가소득의 변동에는 농업소득의 변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소득이 5백~1천만원 사이의 농가에서는 농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농가의 비율이 64.8%인 반면 농업소득이 1~2천만원인 농가에서는 농가소득이 3천만원 이상인 농가의 비율이 21.0%이다.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소득 증대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소득이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은 전체 25.6%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소득이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농가 중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이 33.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농가소득이 연평균 5~10% 증가한 농가에서는 18.1%의 농가만이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이다. 즉,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일수록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더 높았다.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이나 변동 폭이 적은, 소득변동이 안정적인 농가일수록 가계수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농가를 유형화하여 농가소득의 변동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는 어떤 조건의 농가가 상대적으로 외부충격에 잘 견디는가를 제시하여 준다. 농가를 유형화하는 기준으로는 경영주 연령, 표준영농규모, 가

계수지 수준, 자산대비 부채비율 그리고 부채규모를 선택하였다.

경영주 연령과 표준영농규모에 의한 농가 유형화에서는 경영규모가 적고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농가의 평균소득이 가장 낮았고, 경영규모도 크고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하인 농가가 가장 높은 농가소득을 얻고 있다. 그러나 농가소득 변동에서는 경영규모가 크고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농가가 가장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가계수지 수준과 자산대비 부채비율에 의해 농가를 유형화하였다. 가계수지가 적자이고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재무적으로 위험한 농가가 6.1%이고, 가계수지가 흑자이고 부채비율이 40% 이하인 농가는 61.5%이었다.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농가는 가계수지가 적자이며 부채비율이 높은 농가이고,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농가는 가계수지가 흑자이고 부채비율이 높은 농가이었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은 농가일수록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즉, 부채비율이 높으면 소득안정을 위해 부채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를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채비율과 부채규모에 의해 농가를 유형화하였다. 부채규모가 3,000만원 미만이고 부채비율이 40% 이하인 농가가 가장 많은 비율인 72.5%를 차지하고 있고, 부채규모가 3,000만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는 13.6%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농가는 부채규모는 적으면서도 부채비율이 높은 농가이고, 농가소득이 가장 많은 농가는 부채규모는 많으나 부채비율이 낮은 농가이었다. 소득증가율이 연 10% 이상인 농가가 많다는 것은 역으로 외환위기 때 소득이 크게 감소한 농가가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방법 5

제2장 농가경제 불안정 개념과 분석모형 설정

1. 농가경제 불안정 개념 7
2. 농가소득 불안정 실태 분석모형 9

제3장 농가경제 불안정 실태

1. 농가경제 동향 19
2. 농가소득 변동 실태 22
3. 농업소득 변동 실태 27
4.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32
5. 가계비 충족도 35

제4장 농가 유형별 농가경제 변동실태

1. 경영주 연령 및 표준영농규모 40
2. 부채 비율 및 현금흐름(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48
3. 농가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55

제5장 요약 및 결론	61
ABSTRACT	67
참고문헌	69

표 차 례

제3장

표 3- 1. 분석표본의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변동 추이	20
표 3- 2. 농가경제 주요 지표의 엔트로피 불평등도 지수 추이	21
표 3- 3. 농가소득 변동 유형별 농가분포	22
표 3- 4. 농가소득변동과 농가소득 규모별 농가분포	25
표 3- 5. 농가소득 규모별 분포(98~99년 대비 01~02년)	26
표 3- 6. 농업소득 변동 유형별 농가분포	28
표 3- 7. 농업소득 규모별 농가 분포(98~99년 대비 01~02년) ...	31
표 3- 8.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증감규모별 농가분포	33
표 3- 9. 농가소득 규모 및 농업소득 규모별 농가 분포(5년 평균)	34
표 3-10.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변동별 가계수지 적자농가 비율	37

제4장

표 4- 1. 농가 유형(A)별 농가 분포 및 농가경제 주요지표	43
표 4- 2. 농가 유형(A)별 농가소득 변동 정도의 농가 분포	44
표 4- 3. 농가 유형(A) 및 소득변동 실태별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47
표 4- 4. 농가 유형(B)별 농가 분포 및 농가경제 주요지표	50

표 4- 5. 부채 비율 및 현금흐름 농가 유형별 소득변동 실태	51
표 4- 6. 농가 유형(B) 및 소득변동 실태별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54
표 4- 7. 농가 유형(C)별 농가 분포 및 농가경제 주요지표	56
표 4- 8. 농가 유형(C)별 농가소득 변동 정도의 농가 분포	57
표 4- 9. 농가 유형(C) 및 소득변동 실태별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60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농가소득 변동 형태별 농가구분	9
그림 2-2. 농가소득 변동 측정방법	13
그림 2-3. 농가소득 증감과 변동의 관계	16
그림 2-4. 농가소득 변동에 의한 농가 구분	17

제3장

그림 3-1.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변동 추이	20
그림 3-2. 농가소득 연평균 증가 수준 및 변동률 분포	23
그림 3-3. 농가소득 변동유형 농가 그룹 평균농업소득 추이	24
그림 3-4. 농업소득 연평균 증가 수준 및 변동률 분포	29
그림 3-5. 농업소득 변동유형 농가그룹 농가소득 추이	29

제4장

그림 4-1. 경영주 연령 및 표준영농규모의 농가유형 구분	42
그림 4-2. A-LH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별 농가분포	46
그림 4-3. A-LH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별 농가분포	46
그림 4-4. 현금흐름 및 부채 비율에 의한 농가유형 구분	50
그림 4-5. B-HL형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분포	53
그림 4-6. B-HH형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분포	53
그림 4-7. 부채 규모 및 부채 비율에 의한 농가유형 구분	56
그림 4-8. C-LL형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분포	59
그림 4-9. C-HH형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분포	59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농가는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변동하는 생산의 불안정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 혹은 수요의 감소에 의해 농가판매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위험에도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 도하개발협상(DDA)과 무역자유화협정(FTA) 등으로 농산물시장의 대외 시장 개방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위험의 증가에 따라 그만큼 농가경제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농가경제의 불안정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여 농가경제를 안정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정부는 시장개방의 확대로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여 직접지불제의 확대 및 소득안정망제도의 도입 등으로 하락한 농업소득을 정부의 이전소득으로 보전하려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산위험의 부담을 축소하여 주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농가경제 안정정책들은 감소한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농가는 자체적으로 사전에 경영상태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가가 스스로 외부 위험요소에 대응하는 경영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컨설팅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가는 최근 IMF 외환위기라는 커다란 외부 충격의 위험에 직면하였다. 농가의 투입재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반면 경기침체에 의한 수요 정체로 농산물 판매가격은 정체되어 농가소득이 정체 혹은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렇지만 IMF 외환위기의 충격은 농가마다 다른 영향을 주었다. 평균적으로는 소득이 정체되었지만 어떤 농가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외부 충격의 영향은 농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외부 충격에 의해 어느 정도의 농가가 소득이 감소하였고, 어떤 농가들이 소득이 증가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농가나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DDA협상에 의한 농산물시장개방의 확대 등의 외부 충격은 IMF 외환위기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MF 외환위기 때 농가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대책수립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농가경제의 불안정 실태를 평균적인 개념이 아닌 농가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통계청이 5년마다 동일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는 「농가경제실태조사」 원자료 1998~2002년 동안의 자료를 활용하여 농가소득 변동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IMF 외환위기의 영향정도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농가의 회복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의 소득 안정정책 마련에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에도 앞으로 외부 충격에 대비한 경영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IMF 외환위기에 의한 농가경제의 불안정 정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볼 수 있다. 농가의 경영규모 변동을 볼 수도 있고, 농가의 부채규모 변동을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농가소득이 어떻게 변동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농가소득이 증감하는 정도와 그 변동 폭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개별 농가마다 초기의 경영조건과 경영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대해서도 농가소득이 변동하는 형태는 농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농가는 외부위험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어떤 농가는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불안정 상태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외부 충격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회복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가소득의 변동실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를 유형화하여 어떤 농가들이 더욱 많은 충격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농가가 경영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농가경제의 불안정 실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주로 단일 품목의 생산위험에 대해 불안정성을 분석하거나 농가부채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1998년~2002년 동안의 소득변동 실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동일농가의 소득변동 실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농가를 유형화하여 농가 그룹별로 농가경제 변동 실태를 분석한 것도 큰 차이점이다. IMF 외환위기라는 커다란 외부 충격의 위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이 있다.

이 연구는 DDA와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의 위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IMF 외환위기의 충격에 의한 농가경제의 불안정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앞으로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외부의 시장위험으로 인해 농가경제가 받은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어떤 농가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기초 자료 및 농가 경영관리 지표 수준, 외부위험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한 농가의 재무지표 기준 등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변동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소득원별 농가소득 불평등도를 계측하여 어떤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증감 상태 뿐만 아니라 소득변동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둘째, 농가의 경영 특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유형별 농가경제의 변동 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경영주 연령, 영농규모, 부채 규모, 부채 비율 등의 초기 조건 및 경영 특성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셋째, 유형화한 지표들에 따라 간접적으로 농가경제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한다. 경영규모, 부채비율의 변동, 부채규모 등에 따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농가소득의 변동 실태를 분석하였다. 농가경제조사는 5년마다 표본을 교체하고 있는데, 최근의 표본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약 3,040여 호의 동일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5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농가의 소득변동 및 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동안에 표본에서 누락되거나 교체된 농가들은 동일한 농가가 아니다. 이러한 농가를 제외하고 동일표본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5년 동안의 소득변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표본을 상실하여 전체 약 3,040호에서 2,348호 농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5년 동안 동일한 농가로 간주된 2,348호 농가의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변동 상황을 평균과 분산기법을 활용하여 농가경제 불안정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농가소득이 변동하는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불안정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일반적 평균과 분산의 개념은 불안정 실태를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형된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는 분석 대상의 초기 연도인 1998년과 1999년의 평균치와 비교하여 이후에 농가소득이 증가, 감소 또는 정체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¹ 또한 농가소득 증감뿐만 아니라 소득 변동의 폭이 안

¹ 1998년 자료를 초기 조건으로 활용하지 않고 1998년과 1999년 평균치를 적용한 것은 일시적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평균치를 초기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와 비교한 불안정 실태를 분석하였다.

정적인 추세를 따라 증감하였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변동 폭을 가지면서 증감하였는지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소득 변동에 따른 농가를 범주화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였다.

소득변동 수준에 따라 범주화된 농가들은 농가소득의 가계비 충족도에 따라 장기적으로 불안정한지 여부도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동시에 반영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선택하였다. 농가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면 농가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농가소득의 변동 실태는 다시 농가의 초기 경영조건 및 경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어떠한 경영조건을 가진 농가들이 소득의 불안정 정도가 심화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농가를 유형화하는 지표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연구의 단순화를 위하여 농가가 스스로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변수를 선택하였다. 즉, 경영주 연령, 경영규모, 부채 규모, 부채 비율 등을 적용하여 농가를 유형화하였다. 유형화 한 농가그룹별로 농가소득 불안정 정도를 분석하였다.

제 2 장

농가경제 불안정 개념과 분석모형 설정

1. 농가경제 불안정 개념

일반적으로 어떤 변수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증가율과 변동 폭인 분산의 크기를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나 복합적인 경제행위를 하는 농가경제는 목적에 따라 불안정의 개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여 분석할 수 있다. 파산위험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의 변동을 분석하고, 현금흐름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이 가계지출을 충족하는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농가경제의 위험 상태를 분석한 것이다. 반면 농가경제가 위험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농가소득의 변동 정도도 농가경제 불안정의 한 측면이 될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의 증감 정도와 농가소득의 변동 폭을 분석하여야 한다.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것도 농가경제의 불안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그러나 농가별로 소득과 가계비 수준에서 차이가

있어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농가소득 증감 수준에 의해 먼저 불안정 실태를 파악하고, 이후 가계비와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다. 이와 같이 분석 목적에 따라 농가경제의 불안정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 연구는 IMF 외환위기라는 외부적인 큰 위협이 농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고, 향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에 따라 농가경제의 불안정 개념을 농가소득 증감과 변동 폭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농가경제 불안정 개념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한다.

첫째, 연도별 소득 증감 수준

둘째, 연도별 소득변동 폭 수준

셋째, 농가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수준

특히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증감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석 목적이다.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농가경제가 어느 정도 악화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농가소득이 어떤 형태로 증감하였는지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평균적으로는 농가소득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소득변동이 심하면 문제가 있다. 즉, 전체적으로는 농가소득이 증가한 농가라도 특정 시점에서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하였다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최악의 경우에는 일시적 파산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고, 이러한 요인이 장기적인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 증감뿐만 아니라 소득변동 상태도 분석하여야 한다.

농가소득 변동만 고려하는 것은 농가경제의 위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더라도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면 농가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소득 증감률만 고려하면 불안정한 농가인데도 소득이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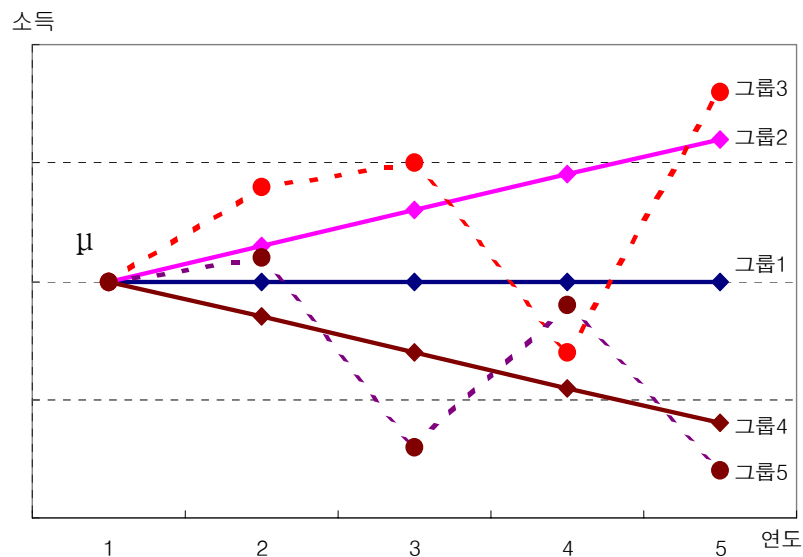
가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소득변동과 함께 소득의 가계비 충족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가경제의 불안정 개념을 위와 같이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2. 농가소득 불안정 실태 분석모형

2.1. 농가소득 변동 형태별 농가구분

농가소득 변동형태는 <그림 2-1>과 같이 농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초기 연도의 소득과 비교하여 이후 농가소득이 증가한 농가와 감소한 농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림에서 초기 연도의 농가소득 수준을 나타낸 것이 μ 이다. 농가는 소득이 증가한 농가와 감

그림 2-1. 농가소득 변동 형태별 농가구분



소한 농가, 그리고 정체된 농가로 크게 구분된다. 다시 증감 추세 선을 따라 안정적으로 증감하는 농가와 증감률이 연도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농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득변동 형태에 따라 농가를 구분한 것이 <그림 2-1>이다.

먼저 소득이 정체된 농가(그룹 1)와 평균적으로는 소득이 정체되어 있지만 연도별로 소득이 증감한 소득변동이 심한 농가를 구분해 낼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한 농가에 대해서도 변동 형태에 따라 안정적으로 증가한 농가(그룹 2)와 농가소득이 변동하면서 평균적으로 증가한 농가(그룹 3)로 구분된다. 또한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감소한 농가(그룹 4)와 불규칙하게 감소한 농가(그룹 5)로 구분된다.

평균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농가라 할지라도 (그룹 3)과 같이 소득변동 폭이 크면서 증가하고 있으면 특정 연도에는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한 농가라 할지라도 소득변동 폭이 크면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소득변동 유형에 따른 농가그룹별로는 효과적인 정책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그룹 3)에 대해서는 소득 안정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순소득계정(NISA)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면 특정 연도에 소득이 감소하였을 때 계정에서 인출하여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평균적으로 소득이 정체되어 있거나 소득이 감소하고 있지만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그룹 5와 같은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정책, 재해보험 등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이런 농가는 높은 소득을 얻은 시기도 있어, 기술수준이 불안정하거나 특별한 재해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는 소득이 낮지만 높은 소득을 얻는 시기도 있으므로 적절한 지원

정책이 마련된다면 높은 소득을 얻던 시기를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는(그룹 4) 더 이상 높은 소득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탈농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2.2. 농가소득 불안정 실태 분석모형

소득 불안정 실태를 분석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평균-분산> 분석방법이다. 평균소득 수준과 소득변동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불안정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균-분산>분석방법은 <그림 2-1>과 같은 농가 유형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평균소득을 사용하면 초기 연도부터 소득이 증가하였는지, 감소하였는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또한 분산의 개념에서도 평균소득이 높은 농가일수록 분산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변동을 적합하게 분석하지 못하게 된다. 동일한 소득변동 차이랄 할지라도 농가가 느끼는 것은 소득이 높은 농가보다 낮은 농가가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2-1>에서 설명하고 있는 농가 그룹을 표시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먼저 평균에 대응된 개념으로 다음 식과 같이 새로운 변수를 정의한다.

$$\text{즉, } \mu x_{it} = \frac{(x_{it} - \mu_i)}{\mu_i} \cdot 100$$

여기서 i 는 농가를 나타낸 것이고, t 는 연도(1998~2002)를 나타낸 것이며, x 는 소득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μx_{it} 는 t 연도의 소득(x_{it})이 초기 연도 소득수준(μ_i)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이 값이 양(+)의 값이면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의 값이면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평균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다음 식과 같이 새로운 평균 개념인 ϵ 을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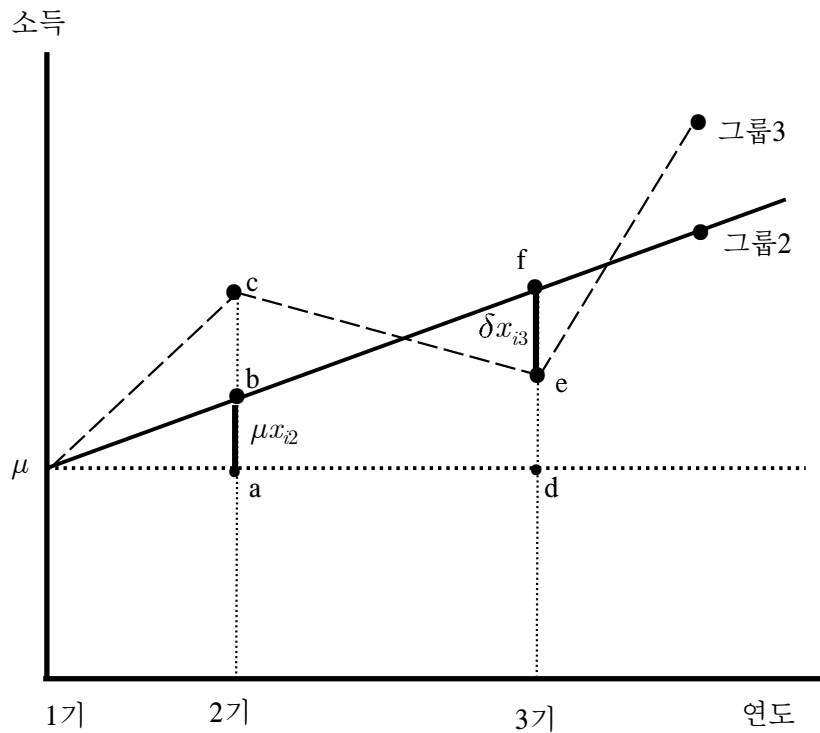
$$\text{즉, } \epsilon_i = E_t(\mu x_{it})$$

이 ϵ 의 값은 기준 연도에 비해 분석 기간의 연평균 소득 증감 정도를 나타낸다. ϵ 의 값이 양(+)이면 그 농가는 기준 연도보다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이면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소득이 정체되어 있다면 0의 값으로 나타난다. ϵ 값은 <그림 2-1>에서 농가를 소득증감별로 구분하여 준다.

그런데 μ_i 의 값이 정상상태보다 매우 낮았다면 이후 농가소득이 정상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ϵ 의 값은 매우 큰 값을 가지 질 수 있다. 따라서 ϵ 의 값이 매우 큰 경우에는 초기의 농가소득 수준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욱 올바른 인식이다. 따라서 ϵ 의 값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높다는 것은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초기 농가경제가 불안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농가소득의 변동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보자. 일반적으로 소득변동 상태는 분산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μx_{it} 는 기준 연도의 소득수준과 비교한 변동 상태이다. μx_{it} 의 분산을 계측하면 농가소득의 변동 상태를 제대로 계측할 수 없다. <그림 2-2>에서의 (그룹 2)와 같이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이 성장하고 있는 농가는 농가소득 변동이 없는 것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농가의 2기 μx_{it} 은 ab의 크기로 측정된다. 이는 매년 일정한 성장률로 소득이 증가한 농가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높으면 μx_{it} 의 분산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농가는 소득분산이 없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보다 올바른 계측방법이다. 즉, 소득변동의 분산은 추세 선에서 얼마

그림 2-2. 농가소득 변동 측정방법



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평균 성장률이 같은 농가 중 연도별 소득 증가 정도가 일정한 농가를 기준하여 소득변동 폭이 어느 정도인가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를 <그림 2-2>의 (그룹 3) 농가를 가지고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농가의 평균 성장률이 (그룹 2)의 농가와 동일하다면 3기의 μx_{it} 는 df의 크기로 나타내고 있지만 분산은 ef의 크기로 측정되어야 한다. (그룹 2)의 농가는 분산이 0인 것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농가소득이 매년 일정한 규모로 성장하는 농가를 고려하여 보자. 매년 소득 증가 규모가 α 배인 농가를 보면, 연도별 소득수준은 다음과 같다.²

$$\begin{aligned}
x_{i1} &= \mu_i \\
x_{i2} &= (1 + \alpha) \cdot \mu_i \\
x_{i3} &= (1 + 2\alpha) \cdot \mu_i \\
x_{i4} &= (1 + 3\alpha) \cdot \mu_i \\
x_{i5} &= (1 + 4\alpha) \cdot \mu_i
\end{aligned}$$

그러면 $\mu x_{it} = (1 - t) \cdot 2\alpha$ 이므로 연평균 소득 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ϵ_i 값은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³

$$\epsilon_i = \frac{(\alpha + 2\alpha + 3\alpha + 4\alpha)}{5} = 2\alpha$$

소득변동의 폭인 분산은 평균인 ϵ 와 관계 속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 증감 정도를 나타내는 ϵ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농가가 안정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볼 때의 연도별 소득수준을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x_{i1}^* = \mu_i$$

² 농가소득이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보다 농가소득 성장률이 일정한 비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이 더욱 올바른 개념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에 설명하는 분산(δ)가 평균인 ϵ 과 일대 일 대응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농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epsilon - \delta)$ 의 좌표선상에서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가소득이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³ 연평균 소득 증가율과 ϵ 값을 대응시킬 수 있다. 분석기간('98~'02) 5년 동안 연평균 소득이 5%씩 증가하였다면 ϵ 값은 10.5이고, 연평균 10%씩 증가하였다면 ϵ 값 22.1%이다. 여기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연평균 소득 증가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 증가 규모가 일정한 값(α)으로 증가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x_{i2}^* = (1 + \frac{1}{2}\epsilon_i) \cdot \mu_i$$

$$x_{i3}^* = (1 + \epsilon_i) \cdot \mu_i$$

$$x_{i4}^* = (1 + \frac{3}{2}\epsilon_i) \cdot \mu_i$$

$$x_{i5}^* = (1 + 2\epsilon_i) \cdot \mu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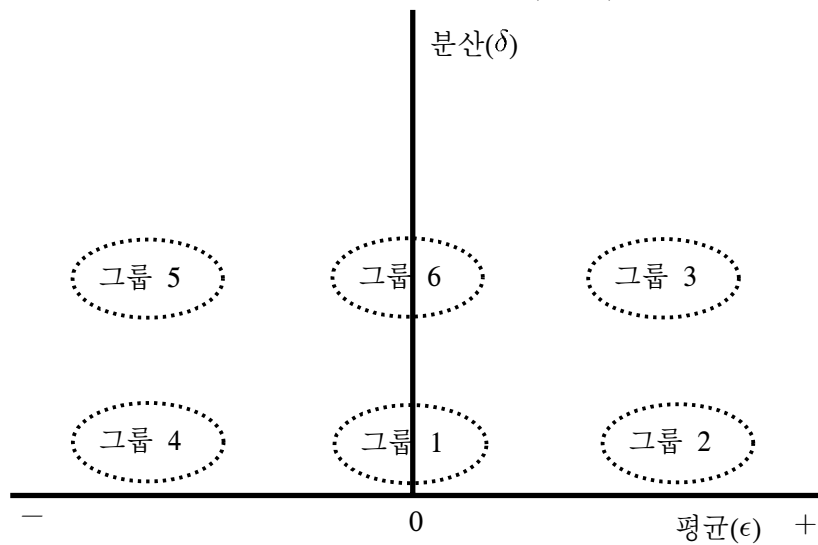
그러면 안정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변동의 정도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하면 올바른 소득변동을 측정할 수 있다.

$$\text{즉, } \delta x_{it} = \frac{(x_{it} - x_{it}^*)}{x_{it}^*}$$

그러면 농가의 소득변동을 나타내는 표준편차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delta_i = \sqrt{E_t[(\delta x_{it})^2]}$$

이와 같이 분산을 정의하면 분산은 앞서 농가소득 증감을 나타내는 평균인 ϵ_i 과 일대 일로 대응시킬 수 있다. ϵ_i 값의 수준과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농가의 경우에는 δ_i 의 값이 0이고, 소득변동이 클수록 증가하게 된다. 농가소득이 평균적으로 동일하게 증가하였더라도 연도별로 소득변동이 심하면 δ_i 의 값이 증가하므로 δ_i 값의 수준에 의해 <그림 2-2>의 (그룹 2)인 농가와 (그룹 3)인 농가를 구분할 수 있다. δ_i 값이 아주 크다는 것은 평균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였더라도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소득이 μ_i 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평균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더라

그림 2-3. 농가소득 증감과 변동($\epsilon - \delta$)의 관계

도 특정 시점에서는 소득이 μ_i 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농가소득의 증감정도와 소득변동의 정도에 따른 농가구분을 ($\epsilon - \delta$)의 관계 속에서 표시할 수 있다. 이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그림 2-3>이다. 농가를 ϵ 값과 δ 값의 정도에 의해 그룹화하고 있다. <그림 2-3>에서 구분한 농가 그룹들은 <그림 2-1>에서 구분한 농가그룹과 일대 일 대응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그림 2-1>의 농가 그룹을 <그림 2-3>에서는 ($\epsilon - \delta$)의 관계 속에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룹 6은 <그림 2-1>에는 표시되지 않고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있지만 농가소득이 기준 연도 소득수준(μ_i)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 농가를 나타낸 것이다.⁴

⁴ <그림 2-1>에서 이러한 농가를 생략한 것은 그래프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림 2-4. 농가소득 변동($\epsilon - \delta$ 값)에 의한 농가 구분

δ 값 \ ϵ 값	성장률	-5% 이하	-5~0%	0~5%	5~10%	10% 이상
	ϵ 값	-10.5 이하	-10.5~0	0 ~10.5	10.5 ~22.1	22.1 이상
40% 이하		그룹 I-1	그룹 II-1	그룹 III-1	그룹 IV-1	그룹 V-1
40% 이상		그룹 I-2	그룹 II-2	그룹 III-2	그룹 IV-2	그룹 V-2

따라서 새로이 정의한 평균과 분산의 값에 의해 농가의 소득변동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 농가경제 자료의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의 이러한 평균과 분산 값을 가지고 개별 농가의 소득변동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정의한 평균과 분산의 개념을 분석모형으로 설정한다.

농가소득의 변동형태에 따라 농가를 유형화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림 2-4>이다. 농가소득 증감의 정도(ϵ)에 의해 농가를 5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소득변동의 정도에 의해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⁵ 농가소득 증감 정도에 따른 농가구분은 먼저 소득이 증가한 농가와 감소한 농가를 구분하고 이를 다시 연평균 5%증감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소득이 증가한 농가에 대해서는 연평균 증가율 10%를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구분한다.⁶ 소득변동의

⁵ 개별 농가의 연평균 소득 증감율과 연평균 ϵ 값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ϵ 값이 아닌 연평균 소득 증감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서는 ϵ 값을 가지고 농가를 구분하였다. 연평균 5% 소득이 증가하면 ϵ 값은 10.5%이고, 10%이면 22.1%이다.

⁶ 농가를 대칭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소득이 증가한 농가를 한 단계 더 구분한 것은 농가의 분포를 고려한 측면도 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한 농가를 더 세분화하는 것이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기준은 40%를 적용하여 구분한다. 이후의 농가를 구분하는 표시방법은 표현의 단순화를 위하여 ϵ 과 δ 이 아닌 <그림 2-4>의 표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농가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는 I로 표시하고, 이들 농가 중 소득변동 수준이 40% 이하이면 (I-1), 40% 이상이면 (I-2)로 표시한다.

한편 농가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소득이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가경제의 불안정 분석에서는 농가소득의 가계비 충족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농가소득이 가계비를 충족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농가를 다시 구분하였다. 이때 가계비 충족도는 1년을 비교하지 않고, 5년 동안 평균소득의 가계비 충족도이다. 1년 동안의 가계비 충족도는 소득변동의 분산에 의해 측정하고 있으므로 5년 동안 평균치를 가지고 가계비 충족도를 평가하고 있다. 5년 동안 농가소득이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더라도 농가경제는 그만큼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제 3 장

농가경제 불안정 실태

1. 농가경제 동향

우리나라 농가는 1990년대 후반 농산물시장 개방과 외환위기에 의한 투입재가격의 상승 및 수요 감소로 인하여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였다. 농가소득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에 농가부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 그 결과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이 2002년에 73%까지 하락하였다. 호당 평균 명목농가소득은 1998년에 20,494천원에서 2002년에는 24,475천원으로 19.4%가 증가하였고, 농가부채는 1998년에 17,011천원에서 2002년에는 19,898천원으로 17.0%가 증가하였다.

반면 분석 표본인 농가의 평균소득은 1998년에 20,932천원에서 2002년에는 24,669천원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증가율이 낮은 17.9%가 증가하였다. 반면 농가부채는 1998년에 17,738천원에서 2002년에는 21,325천원으로 20.2%가 증가하였다. 농가부채는 전국평균 농가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 대상

그림 3-1.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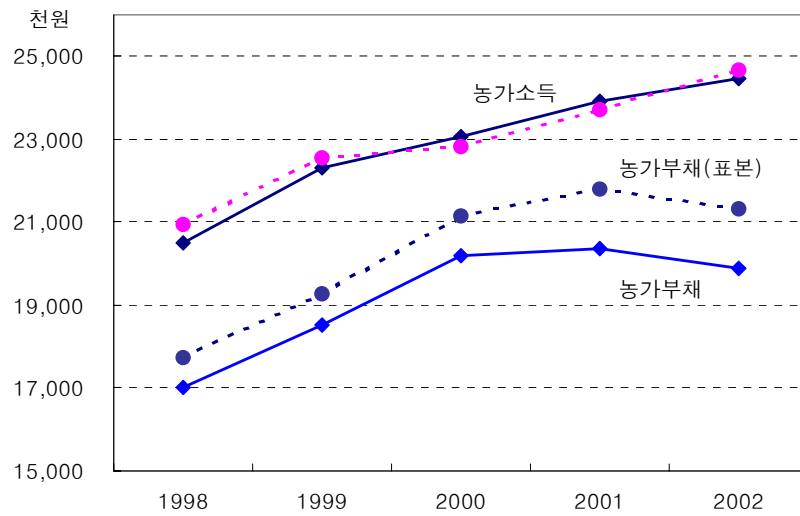


표 3-1. 분석표본의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변동 추이

단위: 천원, (%)

	농가소득		농가부채	
	농가경제자료	분석표본자료	농가경제자료	분석표본자료
1998	20,494 (100.0)	20,932 (100.0)	17,011 (100.0)	17,738 (100.0)
1999	22,323 (108.9)	22,535 (107.7)	18,535 (109.0)	19,263 (108.6)
2000	23,072 (112.6)	22,813 (109.0)	20,207 (118.8)	21,149 (119.2)
2001	23,907 (116.7)	23,710 (113.3)	20,376 (119.8)	21,806 (122.9)
2002	24,475 (119.4)	24,669 (117.9)	19,898 (117.0)	21,325 (120.2)

농가와 농가경제조사 평균농가의 농가소득과 농가부채를 비교하여 보면, 농가소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농가부채는 표본농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명목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농가 간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있어 계층 간 소득 문제의 심각성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농가 간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니계수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보다 적합한 지표는 다음 식과 같이 측정하는 엔트로피 지수이다. 엔트로피지수는 불평등도를 적합하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불평등의 요소를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엔트로피 불평등지수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text{엔트로피 지수 } I = \frac{1}{n} \cdot \sum \frac{x_i}{\mu} \cdot \ln\left(\frac{x_i}{\mu}\right)$$

여기서 x_i 는 표본의 값이고, μ 는 표본의 평균이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하고, 지수 값이 클수록 불평등도는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엔트로피지수에 의해 농가경제 주요 지표의 불평등도 추이를 계산한 것이 <표 3-2>이다. 엔트로피 불평등도 지수를 보면 농가부채의 불평등도가 가장 심하고, 다음으로 농외소득이 심하다. 농가소득의 불평등도는 2000년에 약간 호전된 이후 계속 악화되고

표 3-2. 농가경제 주요 지표의 엔트로피 불평등도 지수 추이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농가부채
1998	0.2086	0.4714	0.6842	0.7965	0.7907
1999	0.2097	0.4622	0.7565	0.7452	0.8177
2000	0.1981	0.4499	0.7565	0.7080	0.8193
2001	0.2005	0.4819	0.7253	0.5676	0.8826
2002	0.2362	0.6067	0.7164	0.6309	0.8972

있다. 특히 2002년에 많이 악화되었다.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의 불평등도는 개선되고 있는 반면 농업소득의 불평등도가 1998년 0.4714에서 2002년 0.6067로 크게 악화되고 있다. 농가 간 농업소득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농가소득의 불평등도가 농업소득의 격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의 변동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농가경제의 불안정 상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2. 농가소득 변동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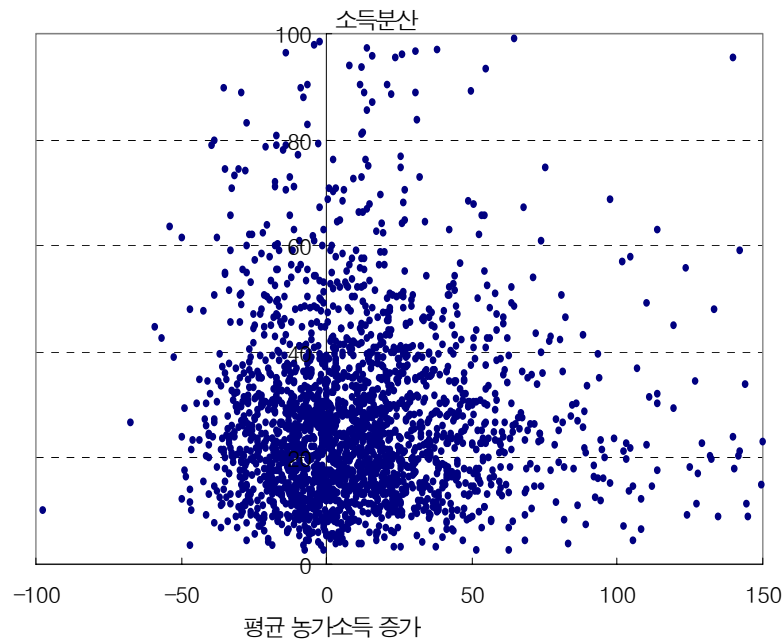
제2장에서 설정한 분석모형에 의해 농가소득의 변동 실태를 분석한 것이 <표 3-3>이고, 이의 분포를 표시한 것이 <그림 3-2>이다. 분석기간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농가소득이 연평균 10% 이상(ϵ 값이 22.1%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은 28.9%이고, 농가소득이 증가한 농가(Ⅲ 그룹 이상의 농가)의 비율은 60.4%이다. 즉, 평균적으로는 농가소득이 증가하였지만 39.6%의 농가는 농가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 중에서도 연평균 5% 이상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에서 소득변동이 불안정한 농가의 비율은 23.9%에 이르고 있다.

농가소득 증감률이 큰 농가일수록 소득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

표 3-3. 농가소득 변동 유형별($\epsilon - \delta$) 농가분포

단위: 호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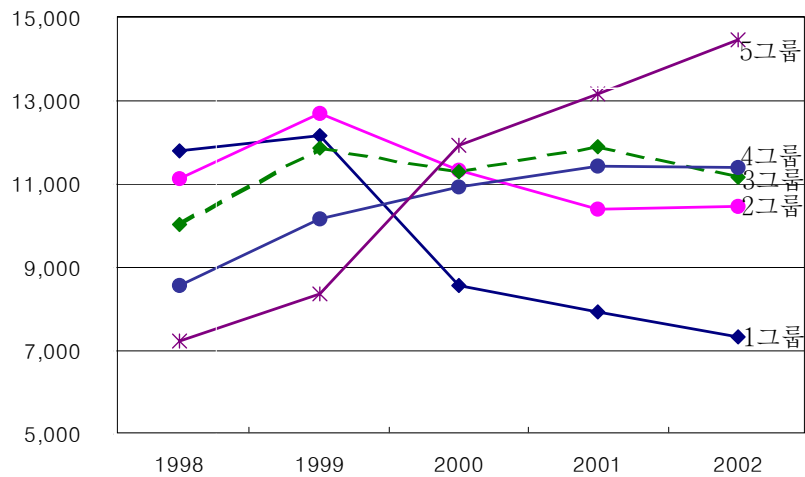
	I 그룹	Ⅱ 그룹	Ⅲ 그룹	Ⅳ 그룹	V 그룹	합계
합 계	560 (23.9)	371 (15.8)	363 (15.5)	375 (16.0)	679 (28.9)	2,348 (100.0)
40%이하	393 (70.2)	340 (91.6)	328 (90.4)	333 (88.8)	513 (75.6)	1,907 (81.2)
40%이상	167 (29.8)	31 (8.4)	35 (9.6)	42 (11.2)	166 (24.4)	441 (18.8)

그림 3-2. 농가소득 연평균 증가 수준 및 변동률 분포($\epsilon - \delta$)

나고 있다. 농가소득이 연평균 5% 이하로 증감하는 농가의 경우 소득변동의 폭이 40% 이상인 농가의 비율이 10% 이하이다. 반면 연평균 5% 이상 감소하거나 10% 이상 소득이 증가한 농가 중 소득변동 폭이 40% 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 증감의 정도가 큰 농가일수록 소득변동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 안정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분포는 <그림 3-2>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농가소득 증가율에 의한 농가 분포를 보면, 소득이 감소한 농가들의 분포 폭보다 소득이 증가한 농가들의 분포 폭이 더 넓다. 또한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들일수록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들의 비중이 더 높다. 소

그림 3-3. 농가소득 변동유형 농가 그룹별 평균농업소득 추이



득이 감소한 농가들은 감소 폭은 적더라도 변동 폭이 크다.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는 농업소득도 크게 감소하였고, 농가소득이 증가한 농가는 농업소득이 증가하였다.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농가 간 농업소득 변동 정도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소득변동 유형별 농가소득 분포를 보면<표 3-4>, 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농가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소득이 연 0~10%로 증가한 농가에서는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농가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득 변동이 큰 농가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일수록 농가소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가소득 변동이 심한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가소득 규모별로 소득 증감 상태를 분석한 것이 <표 3-5>이다. 일시적인 소득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1998년과 1999년 평균소득을

표 3-4. 농가소득 변동과 농가소득 규모별 농가분포

	농가소득 규모					
	1천만원 미만	1~2천만	2~3천만	3~5천만	5천만원 이상	합계
I-1	48 (12.2)	159 (40.5)	118 (30.0)	62 (15.8)	6 (1.5)	393 (100.0)
I-2	37 (22.2)	66 (39.5)	33 (19.8)	25 (15.0)	6 (3.6)	167 (100.0)
II-1	38 (11.2)	124 (36.5)	97 (28.5)	71 (20.9)	10 (2.9)	340 (100.0)
II-2	4 (12.9)	16 (51.6)	6 (19.4)	4 (12.9)	1 (3.2)	31 (100.0)
III-1	21 (6.4)	131 (39.9)	97 (29.6)	71 (21.7)	8 (2.4)	328 (100.0)
III-2	7 (20.0)	14 (40.0)	6 (17.1)	8 (22.9)		35 (100.0)
IV-1	18 (5.4)	124 (37.2)	108 (32.4)	70 (21.0)	13 (3.9)	333 (100.0)
IV-2	5 (11.9)	17 (40.5)	10 (23.8)	8 (19.1)	2 (4.8)	42 (100.0)
V-1	38 (7.4)	170 (33.1)	168 (32.8)	116 (22.6)	21 (4.1)	513 (100.0)
V-2	24 (14.5)	66 (39.8)	39 (23.5)	31 (18.7)	6 (3.6)	166 (100.0)
합계	240 (10.2)	887 (37.8)	682 (29.1)	466 (19.9)	73 (3.1)	2,348 (100.0)

1기의 소득으로 보고, 2001년과 2002년 평균소득을 2기의 소득으로 보고, 소득규모별 농가 분포를 분석하였다. 1기와 2기의 소득분포를 보면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농가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3천만원 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1기에 1천만원 미만인 농가 수는 348호인데 2기에는 306호로 감소하였고, 1~2천만원 사이의 농가는 905호에서 798호 감소하였다. 2~3천만원 사이의 농가도 1기에

617호에서 585호로 감소하였다. 반면 농가소득이 3~5천만원 사이인 농가는 414호에서 530호로 증가하였고, 5천만원 이상인 농가도 64호에서 129호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한 농가가 많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이를 개별 농가별로 구분하여 보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기에 1천만원 미만인 농가들 중 2기에도 1천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으로 동일한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은 43.4%이다. 이들 농가 중 13.5%의 농가는 2기의 농가소득이 2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농가는 외환위기의 영향을 크게 극복하였다.

1기의 농가소득 규모가 1~2천만원 사이인 농가가 2기에도 동일한 소득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은 50.3%이다. 이 농가들 중 2기의 소득수준이 오히려 감소한 농가는 13.0%이고, 36.7%

표 3-5. 농가소득 규모별 분포(98~99년 대비 01~02년)

단위: 호, (%)

2기 1기	1천 미만	1천~2천	2천~3천	3천~5천	5천 이상	합 계
1천 미만	151 (43.4)	150 (43.1)	33 (9.5)	14 (4.0)		348 (100.0)
1천~2천	118 (13.0)	455 (50.3)	219 (24.2)	106 (11.7)	7 (0.8)	905 (100.0)
2천~3천	28 (4.5)	141 (22.9)	214 (34.7)	203 (32.9)	31 (5.0)	617 (100.0)
3천~5천	6 (1.5)	50 (12.1)	104 (25.1)	189 (45.7)	65 (15.7)	414 (100.0)
5천 이상	3 (4.7)	2 (3.1)	15 (23.4)	18 (28.1)	26 (40.6)	64 (100.0)
합 계	306 (13.0)	798 (34.0)	585 (24.9)	530 (22.6)	129 (5.5)	2,348 100.0

주: 1기는 98~99년 평균소득이고, 2기는 01~02년 평균소득.

의 농가는 2기에 소득이 2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농가 그룹은 1기의 소득수준이 2~3천만원 사이인 농가이다. 이들 농가가 2기에도 2~3천만원의 동일한 소득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은 34.7%에 불과하다. 28.4%의 농가는 소득수준이 2천만원 이하로 감소하였고, 반면 37.9%의 농가는 3천만원 이상 수준으로 소득이 증가하였다.

1기의 소득수준이 3~5천만원 사이인 농가의 45.7%가 2기에도 1기의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3천만원 이하로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38.7%이다. 반면 5천만원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한 농가의 비율은 15.7%에 불과하다. 1기의 소득수준이 5천만원 이상인 농가에서는 40.6%의 농가가 그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59.4%의 농가는 5천만원 이하의 수준으로 소득이 감소하였다. 이중 3천만원 이하로 소득이 크게 감소한 농가의 비율도 31.2%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은 농가 그룹에서 소득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3. 농업소득 변동 실태

농가소득 변동실태에 대한 분석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업소득의 변동실태도 분석하였다. 가장 큰 특징은 농업소득이 농가소득보다 더 크게 변동하였다는 것이다. 농업소득의 변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3-6>이다. 농업소득이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33.3%에 이르고 있고, 14.5%의 농가는 연평균 0~5% 정도 농업소득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7.8%의 농가가 농업소득이 감소하였다. 반면 14.9%의 농가는 농업소득이 연평균 0~5% 정도 증가하였고, 연평균 5~10% 정도 증가한 농가의 비율

표 3-6. 농업소득 변동 유형별($\epsilon - \delta$) 농가분포

단위: 호수, (%)

	I 그룹	II 그룹	III 그룹	IV 그룹	V 그룹	합계
합 계	783 (33.3)	340 (14.5)	351 (14.9)	257 (10.9)	617 (26.3)	2,348 (100.0)
40%이하	332 (42.4)	281 (82.6)	295 (84.0)	211 (82.1)	374 (60.6)	1,493(63.6)
40%이상	451 (57.6)	59 (17.4)	56 (16.0)	46 (17.9)	243 (39.4)	855(36.4)

은 10.9%이다.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도 26.3%이다.

농업소득 증감별로 농업소득 변동 실태를 보기 위해 소득변동 폭이 40% 이상인 농가의 비율을 보자. 연평균 5% 이상 농업소득이 감소한 농가 중에는 57.6% 농가, 연평균 0~5% 감소한 농가에서는 17.4%, 연평균 0~5% 증가한 농가 그룹에서는 16.0%, 연평균 5~10% 증가한 농가 그룹에서는 17.9%, 그리고 연평균 10% 이상 농업소득이 증가한 농가에서는 39.4%가 농업소득 변동 폭이 40% 이상이다. 농업소득 증감률이 큰 농가에서 소득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소득의 연평균 증감률과 소득변동 정도에 따른 농가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 <그림 3-4>이다. 소득이 감소한 농가는 연평균 감소율(ϵ 값)이 대부분 -5% 이상인 반면 소득이 증가한 농가에서는 연평균 증가율(ϵ 값)이 5% 이상인 농가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농가들에서는 소득변동 폭이 심한 농가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농업소득 증감률에 의해 구분한 농가를 그룹별 호당 평균 농가소득의 변동 상태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그림 3-5>이다. 농업소득이 5% 이상 감소한 농가는 2000년에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연평균 10% 이상 농업소득이 증가한 농가의 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소득이 증가한 것과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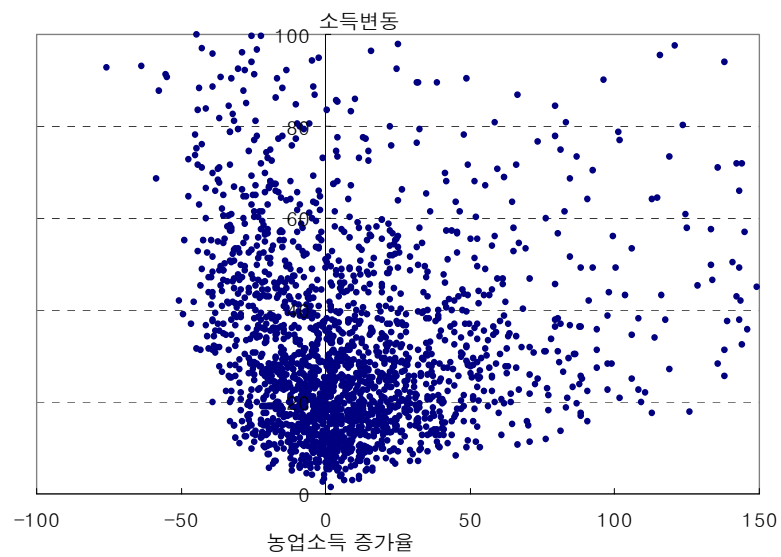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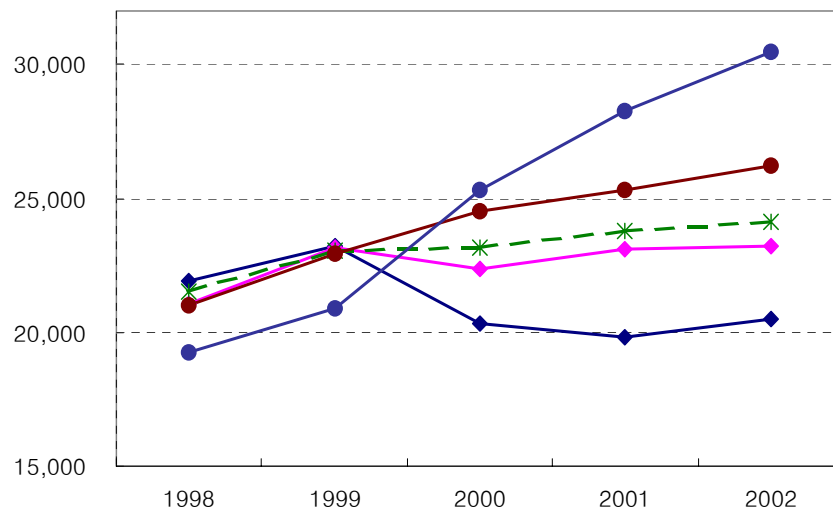
그림 3-4. 농업소득 연평균 증가 수준 및 변동률 분포($\epsilon - \delta$)

그림 3-5. 농업소득 변동유형 농가 그룹별 농가소득 추이



농업소득 변동 실태를 <표 3-3>과 <그림 3-2>의 농가소득 변동 실태와 비교하여 보면, 농업소득 변동실태가 더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이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은 농가소득에서는 23.9%인 반면 농업소득에서는 33.3%로 농업소득이 감소한 농가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이 연평균 5%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도 농가소득에서는 44.9%이고, 반면 농업소득에서는 37.2%로 농업소득이 크게 증가한 비율이 더 낮다. 또한 소득이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농가 중 소득변동 정도가 40% 이상인 농가의 비율을 보면, 농가소득에서는 29.8%인 반면 농업소득에서는 57.6%이다. 연평균 10% 이상 소득이 증가한 그룹 중 소득변동이 40% 이상인 농가의 비율도 농가소득에서는 24.4%인 반면 농업소득에서는 39.4%로 더 높다.

이와 같이 농업소득 변동 실태는 농가소득 변동실태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평균 소득 증가율에서도 농업소득 증가율이 더 낮고, 소득 변동률도 더 크다.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 <그림 3-2>와 <그림 3-4>의 소득 증가율과 소득 변동률에 의한 농가 분포이다. 농업소득의 분포가 더 오른쪽과 위쪽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농업소득 규모별 농가 분포를 비교한 것이 <표 3-7>이다. 여기서 1기는 1998년과 1999년 평균 농업소득이고, 2기 농업소득은 2001년과 2002년 평균 농업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두 기간의 농업소득 규모별 농가 분포를 보면 농업소득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농업소득이 적자인 농가는 1기에 80호인 반면 2기에는 89호로 증가하였고, 5백만원 이하인 농가도 1기 720호에서 2기에 730호로 증가하였다. 반면 농업소득이 5백만원~2천만원인 농가는 1기 1,238호에서 2기에는 1,156호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농업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1기에 310호에서 2기에는 373호 증가하고 있다. 농업소득이 5백만원 이하인 농가와 2천만원 이상인 농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1기의 농업소득이 5백만원 이하인 농가의 2기 농업소득 규모변동을 보면 70.0%의 농가가 아직도 농업소득이 5백만원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6.5%의 농가는 2기 농업소득이 1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1기 농업소득이 2천~3천만원인 농가 중에 2기에도 동일한 규모의 농업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은 33.5%이고, 2기에 농업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감소한 농가의 비율은 44.4%에 이르고 있고, 2기에 농업소득이 3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한 농가의 비율도 22.2%에 이르고 있다. 농가의 농업소득은 1기와 2기에 급격한 변동을 하고 있다. 농업소득이 감소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농업소득이 크게 증가한 농가도 다수 있다.

표 3-7. 농업소득 규모별 농가 분포(98~99년 대비 01~02년)

단위: 호수, (%)

2기 \ 1기	적자	5백 미만	5백~1천	1천~2천	2천~3천	3천 이상	합계
적자	22 (27.5)	35 (43.8)	10 (12.5)	10 (12.5)	3 (3.8)		80 (100.0)
5백 미만	37 (5.1)	504 (70.0)	133 (18.5)	35 (4.9)	4 (0.6)	7 (1.0)	720 (100.0)
5백~1천	15 (2.4)	135 (21.6)	297 (47.6)	145 (23.2)	24 (3.9)	8 (1.3)	624 (100.0)
1천~2천	12 (2.0)	49 (8.0)	126 (20.5)	302 (49.2)	85 (13.8)	40 (6.5)	614 (100.0)
2천~3천	3 (1.4)	5 (2.4)	16 (7.6)	70 (33.0)	71 (33.5)	47 (22.2)	212 (100.0)
3천 이상		2 (2.0)	2 (2.0)	10 (10.2)	33 (33.7)	51 (52.0)	98 (100.0)
합 계	89 (3.8)	730 (31.1)	584 (24.9)	572 (24.4)	220 (9.4)	153 (6.5)	2,348 (100.0)

주: 1기는 98~99년 평균, 2기는 01~02년 평균 농업소득.

4.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농가소득의 변동이 농업소득 변동에서 오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절에서 농가소득 불평등도 심화 요인이 농업소득의 불평등도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따라서 농가소득 변동과 농업소득 변동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가소득 변동 정도와 농업소득 변동 정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표 3-8>이다. 농가소득보다 농업소득의 증가율이 낮다.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농가 수는 농가소득에서는 560호인데 농업소득에서는 783호로 더 많고, 연평균 5~10% 증가한 농가는 농가소득에서는 375호인데 반해 농업소득에서는 257호로 더 적다.

농가소득이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농가 560호 중 농업소득도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은 59.8%에 이르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농가 679호 중 농업소득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은 51.0%에 이르고 있다. 농가소득이 연평균 0~5% 감소한 371호 농가 중 농업소득도 연평균 0~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중이 21.6%이고, 농업소득이 연평균 10%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중은 39.1%에 이르고 있다. 농가소득이 연평균 0~5% 증가한 농가 중 농업소득 증가율별 분포를 보면, 농업소득이 감소한 농가의 비율은 48.8%이고, 농업소득이 0~5% 증가한 농가의 비율은 20.9%에 불과하다. 반면 농가소득이 연평균 5~10% 증가한 농가의 경우를 보면, 농업소득도 연평균 5~10% 증가한 농가의 비중은 14.9%에 불과하고, 농업소득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이 28.0%이며, 농업소득이 감소한 농가의 비율도 36.3%에 이르고 있다.

표 3-8.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증감규모별 농가분포

농업소득 농가소득	I 그룹	II 그룹	III 그룹	IV 그룹	V 그룹	합 계
I 그룹	335 (59.8)	73 (13.0)	71 (12.7)	33 (5.9)	48 (8.6)	560 (100.0)
II 그룹	145 (39.1)	80 (21.6)	56 (15.1)	39 (10.5)	51 (13.8)	371 (100.0)
III 그룹	99 (27.3)	78 (21.5)	76 (20.9)	43 (11.9)	67 (18.5)	363 (100.0)
IV 그룹	81 (21.6)	55 (14.7)	78 (20.8)	56 (14.9)	105 (28.0)	375 (100.0)
V 그룹	123 (18.1)	54 (8.0)	70 (10.3)	86 (12.7)	346 (51.0)	679 (100.0)
합 계	783 (33.4)	340 (14.5)	351 (15.0)	257 (11.0)	617 (26.3)	2,348 (100.0)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변동실태별 농가 분포에 대한 동일성 검증을 하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 농업소득의 변동이 농가소득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의 경우에는 농업소득 감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농가소득이 소폭 증가한 농가의 경우에는 농업소득 변동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도 크게 증가하여야 한다. 농가소득 변동 폭이 큰 농가에서는 농업소득 변동이

⁷ 귀무가설은 농가소득 분포와 농업소득 분포가 같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표본의 $\chi^2 = 539.0$ 이고, 검정통계량 $\chi^2(16, 0.005) = 34.27$ 이어서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채택된다. 즉,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에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소득의 안정이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그런데 앞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농업소득 불안정 요인이 증대할 것으로 보여 농가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전망이다.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규모별 농가 분포를 나타낸 것이 <표 3-9>이다. 여기에서는 특정 연도의 소득보다는 1998년에서 2002년 5년 동안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농가소득이 적은 농가인 1천~2천만원 사이의 농가 887호 농가를 보면, 이들 농가 중 가장 많은 비율인 42.8%의 농가가 농업소득이 5백~1천만원 수준이고, 33.4%의 농가는 농업소득이 5백만원 이하이다. 반면 농가소득이 3천~5천만원 미만인 466호 농가를 보면, 농업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 농가의 비율은 30.9%이고, 농업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농가의 비율

표 3-9. 농가소득 규모 및 농업소득 규모별 농가 분포(5년 평균)

단위: 호, (%)

농업소득 농가소득	적자	5백미만	5백~1천	1천~2천	2천~3천	3천 이상	합계
1천 미만	19 (7.9)	176 (73.3)	44 (18.3)	1 (0.4)	-	-	240 (100.0)
1천~2천	14 (1.6)	296 (33.4)	380 (42.8)	196 (22.1)	1 (0.1)	-	887 (100.0)
2천~3천	6 (0.9)	145 (21.3)	147 (21.6)	299 (43.8)	85 (12.5)	-	682 (100.0)
3천~5천	3 (0.6)	68 (14.6)	73 (15.7)	124 (26.6)	127 (27.3)	71 (15.2)	466 (100.0)
5천 이상	2 (2.7)	7 (9.6)	10 (13.7)	8 (11.0)	9 (12.3)	37 (50.7)	73 (100.0)
합 계	44 (1.9)	692 (29.5)	654 (27.9)	628 (26.7)	222 (9.5)	108 (4.6)	2,348 (100.0)

은 43.5%이다. 또한 농가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농가에서는 농업소득이 3천만원 이상인 농가의 비율이 50.7%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소득이 낮은 농가는 농가소득이 낮은 농가의 비율이 많고, 농업소득이 높은 농가에서는 농가소득도 높은 농가의 비율이 많다. 이는 농외소득에 의해 농가소득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소득이 하락하게 되면 농가소득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앞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어 농업소득이 하락하게 되면 농가의 소득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소득의 안정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

5. 가계비 충족도

이제까지는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의 절대적 변동실태만을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농가소득이 농가의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농가경제는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소득 변동실태 못지않게 가계비 충족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소득의 가계비 충족도는 특정 연도 1년만을 고려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즉 5년 동안 평균 가계비 충족도를 분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농가소득의 변동이 심한 경우 특정 연도에는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소득증대에 의해 부족한 가계비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가계비 충족도를 분석하는 것이 농가경제 상태를 더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 된다. 그래서 1998년에서 2002년까지 5년 동안 농가소득이 가계

비 지출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소득이 가계비를 충족하면 흑자농가, 그렇지 못하면 적자농가로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3-10>이다. 농가소득이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한 적자 농가의 비율은 25.6%에 이르고 있다. 선형적으로 농가소득 증가율이 높으면 가계수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낮고, 농가소득 감소율이 높으면 적자농가의 비율이 매우 높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감소한 농가에서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더 높지만 소득이 증가한 농가에서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도 많이 출현하고 있다.

농가소득이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농가 중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은 33.7%에 이르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한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농가에서도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24.4%이다. 농가소득이 연평균 5~10% 증가한 농가에서는 18.1%의 농가가 적자농가이다. 이와 같이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는 초기의 농가소득 수준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농가는 소득이 약간 증가하기만 하면 농가소득 증가율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가소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면서도 가계수지가 적자인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농가소득 증가율로만으로 농가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농가소득의 가계비 충족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일수록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더 높고, 농가소득이 증가한 농가일지라도 연평균 증가율이 높으면 오히려 초기 조건이 나빠서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농가소득보다는 농업소득과 가계수지 적자인 농가 간의 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소득이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표 3-10.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변동별 가계수지 적자농가 비율
단위: 호, (%)

농가구분		농가소득 분포별 가계수지			농업소득 분포별 가계수지		
		적자	흑자	합계	적자	흑자	합계
I 그룹	I-1	115 (29.3)	278 (70.7)	393 (100.0)	81 (24.4)	251 (75.6)	332 (100.0)
	I-2	73 (43.7)	94 (56.3)	167 (100.0)	192 (42.6)	259 (57.4)	451 (100.0)
II 그룹	II-1	83 (24.4)	257 (75.6)	340 (100.0)	49 (17.4)	232 (82.6)	281 (100.0)
	II-2	13 (41.9)	18 (58.1)	31 (100.0)	19 (32.2)	40 (67.8)	59 (100.0)
III 그룹	III-1	69 (21.0)	259 (79.0)	328 (100.0)	58 (19.7)	237 (80.3)	295 (100.0)
	III-2	13 (37.1)	22 (62.9)	35 (100.0)	16 (28.6)	40 (71.4)	56 (100.0)
IV 그룹	IV-1	51 (15.3)	282 (84.7)	333 (100.0)	43 (20.4)	168 (79.6)	211 (100.0)
	IV-2	17 (40.5)	25 (59.5)	42 (100.0)	16 (34.8)	30 (65.2)	46 (100.0)
V 그룹	V-1	105 (20.5)	408 (79.5)	513 (100.0)	58 (15.5)	316 (84.5)	374 (100.0)
	V-2	61 (36.8)	105 (63.3)	166 (100.0)	68 (28.0)	175 (72.0)	243 (100.0)
합 계		600 (25.6)	1,748 (74.5)	2,348 (100.0)	600 (25.6)	1,748 (74.5)	2,348 (100.0)

농가 중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은 34.9%로 농가소득의 감소 농가 33.7%보다 더 높다. 또한 농업소득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농가에서는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20.7%로 농가소득의 24.4%보다 낮은 상태이다. 농업소득이 연평균 5~10% 증가한

농가에서는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22.9%로 농가소득의 18.1%보다는 높다.

또한 농가소득이나 농업소득이나 변동 폭이 적은 소득변동이 안정적인 농가일수록 가계수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소득 증감률이 동일한 농가라 할지라도 소득변동 폭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가계수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변동 폭이 크면 가계수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더 높다. 농가소득이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농가를 보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가인 소득변동 폭이 40% 이하인 농가에서는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29.3%인 반면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인 40% 이상인 농가에서는 43.7%의 농가가 가계수지가 적자이다. 또한 농가소득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농가의 경우를 보면, 소득변동 폭이 40% 이하인 농가의 경우에는 20.5%의 농가만이 가계수지가 적자인 반면 소득변동 폭이 40% 이상인 불규칙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농가에 있어서는 36.8%로 매우 많은 농가들이 가계수지가 적자이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소득 변동형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변동 폭이 크면 클수록 가계수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가소득의 안정이 가계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는 소득불안정이 심하면 소비수준을 소득이 높을 때를 기준으로 지출을 하고, 소득이 하락하면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농가소득은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는 반면 가계비는 소득변동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적용하고 있는 농가소득안정계정(NISA)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을 완화하여 주는 것이 가계수지 균형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

제 4 장

농가 유형별 농가경제 변동실태

농가소득의 불안정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계량경제학적 방법에 의해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있다. 이는 농가경제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농가소득 변동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계량경제학적 방법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잘 파악할 수는 장점은 있지만 경영개선의 방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정하여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농가를 유형화하고, 농가 유형별로 농가소득 불안정 정도를 분석하는 접근법으로 농가경제 불안정 요인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정 유형의 농가일수록 농가소득 불안정 실태가 더 심하다면 그런 유형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농가경제의 불안정을 해결하는 방향일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불안정 요인을 파악하지 않더라도 어떤 농가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었는가를 제시하여 준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에 의해 농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불안정 실태를 분석하였다. 농가를 유형화하는 기준으로는 경영주 연령, 농업 경영규모, 부채비율, 부채규모 등을 적용하였다.

1. 경영주 연령 및 표준영농규모

농가를 유형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경영주 연령과 경영규모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농가를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다. 한 변수만 고려하는 것보다는 두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경영주 연령이 낮더라도 경영규모가 적으면 농업의존도가 낮기 때문이다.

농가의 성장단계 즉,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농가가 직면하는 경제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경영주 연령에 의해 농가를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0~40대의 농가는 전업적으로 영농하는 농가도 많고 경영규모도 확대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계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반면 60대 후반의 농가는 이제 영농을 그만두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농업소득 의존도가 낮으며 소득이 부족하여도 자산에 의해 가계비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소득불안정의 위험이 낮다. 따라서 경영주 연령이 농가경제불안정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경영주 연령별로 농가소득의 변동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농가는 농업활동 이 외에도 비농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경영규모에 의해 농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농업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농업활동의 의존도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를 결정하는 지표가 경영규모이다. 경영주 연령이 낮아 활동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농업의존도가 낮다면 농산물 시장개방 등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정책 대상으로서 위치는 낮아진다. 반면 경영주 연령이 높더라도 농업의존도가 높으면 농산물 시장개방의 영향을 많이 받고, 농업의 불안정 위험 요인이 농가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으

므로 중요한 정책 대상이다. 따라서 경영규모별로 농가소득의 변동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농가의 경영규모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경작면적을 적용한다. 자작지든 임차지든 농가의 경작면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지고 경영규모를 평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협소하여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한된 토지자원을 자본투자로 대체하는 농가가 많다. 즉, 우리 농업이 시설농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시설농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의 노동력 활용에서 차이가 있다. 시설농업은 노동력 활용도를 높이기 때문에 농업소득 창출기회가 확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작면적만을 고려하면 오히려 경영규모가 적은 농가일수록 농업소득이 높아 경영규모 축소가 유리한 방향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시설투자도 경영규모로 환산하여 함께 고려하는 것이 농업 생산구조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편차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시설규모를 경영규모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설농업의 발달로 농업용 고정자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여건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농업용 고정자산을 경작규모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농지의 수익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경지면적으로 환산하는 것이 있다.(최양부 등 1983, 41) 즉, 다음 식과 같이 농업용 고정자산 규모를 경영규모로 환산하여 경영규모를 평가하는 표준영농규모(SSF : Standardized Size of Farming)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농업용 고정자산을 농지의 실제가격이 아닌 수익지가로 다시 평가한 것은 농가가 농지를 활용하거나 자본시설을 활용한 것이나 비용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농지의 실제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농지의 농업용 가치만을 고려하고, 자산적 가치로서의 역할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SSF = L_C + \frac{FA}{L_P}$$

여기서 SSF : 표준 영농규모

L_C : 경작면적

FA : 농업용 고정자산

L_P : 농지의 수익지가(평당 25,000원)

농가의 경영주 연령과 경영규모를 고려하여 농가를 유형화 한 것이 <그림 4-1>이다. 경영주 연령은 60세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고, 표준영농 규모는 6,000평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60세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앞으로 영농을 전업적으로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표준영농규모 6,000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2ha가 전업농가인가 부업농가인가를 구분하는 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하이면서 경영규모가 6,000평 이상이면 농업 의존도가 높아 농업여건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분석표본의 농가 분포를 보면, 60세 이하이고 경영규모가 6,000평 미만인 농가가 40.6%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다음으로 60세 이하의 농가이면서 경영규모가 6,000평 이상인 농가도 29.3%나 분포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농가에서는 경영규모가 큰 6,000평 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매우 낮다. 즉, 경영규모가 큰 전업적 농가 783호 중 60세 이하의 농가가 689호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농가의 표준

그림 4-1. 경영주 연령 및 표준영농규모에 의한 농가 유형 구분

	60세 이하(L)	60세 이상(H)
6,000평 이하(L)	A-LL	A-LH
6,000평 이상(H)	A-HL	A-HH

경영규모는 10,203평에 이르고 있다.

농가 유형별 표준영농 규모를 보면, (A-HL)유형 농가가 가장 큰 규모인 10,203평이고, 다음으로 (A-HH)형 농가가 8,314평이다. 이들 농가는 임차지 비중도 높다. (A-HL)형 농가는 임차비율이 50.7%이고, (A-HH)형 농가의 임차비율은 42.3%이다. 경영규모 확대에서 임차 의존도가 높다.

농가의 1998년에서 2002년까지의 연평균 소득규모를 보면, 경영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이 많다. (A-HL)형 농가의 농가소득은 30,489천원이고, 농업소득은 19,484천원이어서 농업소득 의존도가 63.9%에 이르고 있다. (A-HH)형 농가의 농가소득은 25,176천원이고 농업소득은 14,568천원으로 농업소득 의존도가 57.9%에 이르고 있다. 반면 (A-LL)형 농가는 농가소득이 21,873천원인데 반해 농업소득은 7,099천원으로 농업소득 의존율이 32.5%로 매우 낮다.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규모도 경영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많다. (A-HL)형 농가의 부채규모는 36,812천원으로 가장 많고, (A-LL)형

표 4-1. 농가 유형(A)별 농가 분포 및 농가경제 주요지표

단위: 호, 평, 천원, (%)

	A-LL	A-LH	A-HL	A-HH
농가호수	954 (40.6)	611 (26.0)	689 (29.3)	94 (4.0)
표준영농규모	3,370	2,899	10,203	8,314
경작규모	2,804	2,523	8,537	7,014
임차면적 (임차비율)	1,096 (39.1)	854 (33.9)	4,325 (50.7)	2,965 (42.3)
농가소득	21,873	15,717	30,489	25,176
농업소득 (농업소득 비율)	7,099 (32.5)	5,657 (36.0)	19,484 (63.9)	14,568 (57.9)
농가부채	16,750	7,012	36,812	20,581

농가는 16,750천원이다.(A-LH)형농가의 부채가 7,012천원으로 가장 적다.

이 농가 유형별로 농가소득 변동 실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표 4-2>이다. (A-LL)형 농가에서는 연평균 10% 이상 소득이 증가한 농가(V 그룹)의 비율이 29.8%이고, 연평균 5% 이상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I 그룹)의 비율도 22.5%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A-HL)형 농가에 있어서는 연평균 10% 이상 농가소득이 증가한 농가(V 그룹)의 비율이 30.3%로 가장 높고, 연평균 소득이 5% 이상 감소한 농가(I 그룹)의 비율은 23.1%이다.

문제가 심각한 농가는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영농규모도 큰 농가인 (A-HH)형 농가이다. 이들 농가에서는 연평균 10% 이상 농가 소득이 증가한 농가(V 그룹)의 비율이 가장 낮은 21.3%이고, 연평균 5% 이상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I 그룹)의 비율이 가장 높은 34.0%에 이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경영주 연령이 높고, 농업 의존도가 큰 농가에서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농가인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경영규모가

표 4-2. 농가 유형(A)별 농가소득 변동 정도의 농가 분포

단위: 호, (%)

	I 그룹	II 그룹	III 그룹	IV 그룹	V 그룹	합계
A-LL	215 (22.5)	135 (14.2)	142 (14.9)	178 (18.7)	284 (29.8)	954 (100.0)
A-LH	154 (25.2)	104 (17.0)	94 (15.4)	93 (15.2)	166 (27.2)	611 (100.0)
A-HL	159 (23.1)	121 (17.6)	113 (16.4)	87 (12.6)	209 (30.3)	689 (100.0)
A-HH	32 (34.0)	11 (11.7)	14 (14.9)	17 (18.1)	20 (21.3)	94 (100.0)

적은 농가(A-LH)와 경영주 연령이 젊고 경영규모가 큰 농가(A-HL)의 농가소득 변동 실태를 비교한 것이 <그림 4-2>와 <그림 4-3>이다. 두 유형의 농가에서 농가소득 변동실태에 의한 농가 분포를 보면 (A-LH)형 농가일수록 소득 감소 폭이 큰 농가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A-HL)형 농가는 소득 증가율이 높은 농가에 더욱 많이 분포하고 있다. 소득변동 폭에서는 (A-LH)형 농가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농가소득이 증가한 농가에서는 (A-HL)형 농가가 소득변동 폭이 더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가소득 변동 유형별 농가소득과 농가부채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표 4-3>이다. 전체적으로 소득 증가율이 높은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이 많고, 동일한 소득 증가율의 농가이면 소득변동 폭이 적은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다. 농가부채 규모와 농가소득 증감률 간에는 관계성이 낮다. 그러나 동일한 소득 증감률의 농가이면 농가부채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소득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농가부채 규모가 크므로 농가경제 위험성은 더 높다.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농가부채의 규모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소득 증감률이 동일한 농가에 있어서는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이 적고 오히려 부채 규모가 많은 편이다.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하이고 표준영농규모가 6,000평 이상인 농가(A-HL)의 경우를 예로 보자. 이들 농가에서 농가소득이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농가(I 그룹) 중 소득변동 폭이 40% 이하인 농가의 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27,980천원이고 농가부채는 35,275천원이다. 반면 소득변동 폭이 40% 이상인 농가는 호당 평균 농가소득이 22,376천원인 반면 농가부채는 48,470천원으로 매우 높다. 또한 연평균 농가소득이 5~10% 증가한 농가(IV 그룹)의 경우 소득변동 폭이 40% 이하인 농가의 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32,639천원인 반면 농가부채는 34,823

그림 4-2. A-LH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별 농가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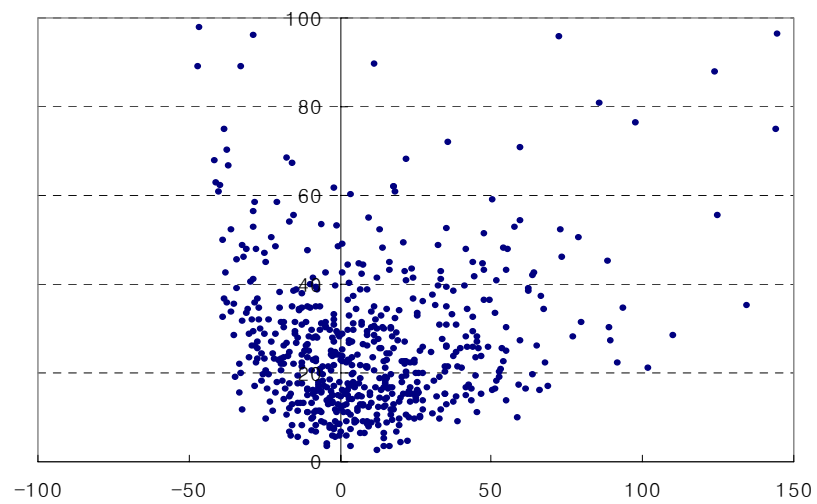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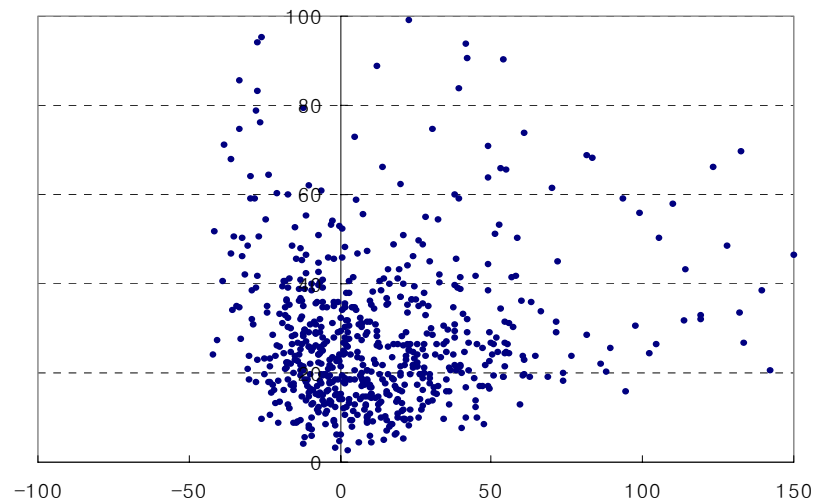


그림 4-3. A-HL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별 농가분포



천원이다. 반면 소득변동 폭이 40% 이상인 농가는 호당 평균 농가 소득이 31,654천원으로 약간 낮고, 농가부채는 47,843천원으로 매우 많은 편이다.

표 4-3. 농가 유형(A) 및 소득변동 실태별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단위: 천원

	A-LL		A-LH		A-HL		A-HH	
	소득	부채	소득	부채	소득	부채	소득	부채
I-1	19,973	12,704	14,820	4,250	27,980	35,275	26,714	13,269
I-2	19,059	26,376	17,432	12,856	22,376	48,470	16,866	38,750
II-1	22,265	10,179	14,805	4,203	30,923	30,077	29,440	16,153
II-2	15,724	25,283	14,380	9,251	27,177	32,883	6,357	16,197
III-1	21,904	16,014	14,945	7,019	31,802	31,005	25,120	6,369
III-2	17,722	20,581	11,699	6,749	28,091	44,395	22,807	21,725
IV-1	23,635	14,379	16,666	7,797	32,639	34,823	28,070	19,072
IV-2	23,392	15,213	17,961	13,232	31,654	47,843	-11,259	249,412
V-1	23,565	17,452	16,695	8,246	33,737	34,915	24,160	26,217
V-2	20,044	30,606	16,058	8,770	28,496	59,182	29,558	8,626

2. 부채 비율 및 현금흐름(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농가경제의 위험성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농가경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농가소득이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금흐름 상의 적자 상태를 의미한다. 농가가 단기적으로 적자상태이면 부채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부족한 현금흐름을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그만큼 농가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 농가경제가 장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로 측정한다.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높으면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가경제에서 고려하고 있는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40%와 70%이다.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하이면 농가경제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상태에 있다고 본다. 이런 농가가 단기적으로 현금흐름이 적자이더라도 자산의 매각을 통해서나 혹은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서 농가 스스로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농가는 단기적으로 현금흐름상 적자이어도 아직까지는 건전한 농가로 파악한다.

그런데 농가의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70%라는 것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를 상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라고 본다.⁸ 이런 농가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현금흐름이 적자이면 농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⁸ 기업에 있어서도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의 지표가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의 200% 이하이다.

따라서 농가경제 위험성 정도를 가지고 농가를 구분할 때는 단기 현금흐름과 자산대비 부채 비율의 두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즉, 현금흐름이 적자인가와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40%인가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여기에서 자산대비 부채 비율을 70%로 설정하지 않고 40%로 설정한 것은 단기 현금흐름의 적자를 농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이라도 70% 이하이면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상태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70% 사이이고 현금흐름이 적자이면 단기적으로 위험한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농가경제의 위험성을 분석할 때는 자산대비 부채 비율의 기준을 40%로 설정한다.⁹

이러한 기준에 의해 농가를 구분한 것이 <그림 4-4>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농가는 현금흐름이 적자이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가(B-LH형)이다. 이런 농가는 현재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본다. 반면에 현금흐름이 적자이지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하인 농가(B-LL형)는 단기적으로 위험성이 약간 있더라도 위험한 농가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구분한 농가 유형별 분포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표 4-4>이다. 대부분의 농가인 61.6%의 농가는 가계수지도 흑자이고 부채 비율도 40% 이하로 건전한 상태(B-HL형)이다. 그러나 6.1%의 농가(B-LH형)는 현금흐름도 적자이고 부채 비율도 40% 이상으로 아주 높은 상태이다.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⁹ 박성재 외(2002), 미국에서는 현금흐름과 자산대비 부채 비율을 가지고 농가경제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다. 농가가 현금흐름이 적자이고,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이면 위험한 농가로 파악하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가 얼마나 출현하고 있는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금흐름이 적자이지만 아직도 부채 비율이 낮은 농가(B-LL형)가 1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금흐름은 흑자이지만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B-HH형)는 12.9%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은 농가는 임차비율도 높고, 농가부채 규모도 매우 크다. 반면 현금흐름이 적자인 농가는 농가소득이 1,600만원 이하로 아주 적다. 이런 농가일수록 농업소득이 적고 농업소득 의존도도 낮다. 특히 현금흐름이 적자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은 농가의 상태를 보면, 농가소

그림 4-4. 현금흐름 및 부채 비율에 의한 농가 유형 구분

	부채 비율 40% 이하(L)	부채비율 40% 이상(H)
적자농가(L)	B-LL	B-LH
흑자농가(H)	B-HL	B-HH

표 4-4. 농가 유형(B)별 농가 분포 및 농가경제 주요지표

단위: 호, 평, 천원, (%)

	B-LL	B-LH	B-HL	B-HH
농가호수	457 (19.5)	143 (6.1)	1,446 (61.6)	302 (12.9)
표준영농규모	4,208	5,770	5,507	6,908
경작규모	3,427	4,621	4,658	5,944
임차면적 (임차비율)	1,296 (37.8)	2,536 (54.9)	1,956 (42.0)	3,455 (58.1)
농가소득	15,788	13,791	25,343	26,522
농업소득	6,369	6,032	11,895	13,412
(농업소득 비율)	(40.3)	(43.7)	(46.9)	(50.6)
농가부채	12,351	61,318	11,415	55,110

득이 약 1,300만원으로 가장 낮은 상태이면서 부채 규모는 약 6,1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매우 위험한 농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현금흐름이 흑자이면서 부채 비율이 40% 이하로 낮은 농가는 농가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부채 규모는 1,100만원 수준으로 적은 상태이다. 농가경제가 매우 건전한 상황이다. 현금흐름이 흑자이면서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가는 부채 규모가 크지만 농가소득도 2,600만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부채 규모만을 평가하여서는 농가경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 유형별 1998~2002년까지 농가소득 변동에 따른 농가 분포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표 4-5>이다. 농가소득이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한 현금흐름이 적자인 농가들 중 농가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31% 이상으로 가장 높다. 가장 건전한 농가로 구분되고 있는 농가인 현금흐름이 흑자이고, 부채 비율이 40% 이하인 농가(B-HL형)를 보면 22.3%의 농가가 연 5% 이상 소득이 감소하였고, 28.4%의 농가는 연 10% 이상의 소득이 증가하였다. 반면 현금흐름이 흑자이면서 농가부채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은 농가가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농가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

표 4-5. 부채 비율 및 현금흐름 농가 유형별 소득변동 실태

	I 그룹	II 그룹	III 그룹	IV 그룹	V 그룹	합계
B-LL	143 (31.3)	80 (17.5)	60 (13.1)	56 (12.3)	118 (25.8)	457 (100.0)
B-LH	45 (31.5)	16 (11.2)	22 (15.4)	12 (8.4)	48 (33.6)	143 (100.0)
B-HL	323 (22.3)	237 (16.4)	237 (16.4)	238 (16.5)	411 (28.4)	1,446 (100.0)
B-HH	49 (16.2)	38 (12.6)	44 (14.6)	69 (22.8)	102 (33.8)	302 (100.0)

의 비율이 16.2%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의 비율도 28.8%로 가장 낮다. 또한 농가소득이 연 10%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도 33.8%로 가장 높다. 이는 농가가 부채를 잘 활용하면 농가성장에 큰 기여를 한다는 부채의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를 잘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금흐름이 적자이고 부채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은 농가도 부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채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농가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이런 농가 중 농가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31.5%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의 현금흐름이 흑자인 농가를 자산대비 부채 비율로 구분한 B-HL형 농가와 B-HH형 농가의 소득 증감률 및 변동 폭에 따른 농가들의 분포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그림 4-5>와 <그림 4-6>이다. <표 4-5>에서 보듯이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에서 소득이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연 5% 이상 증가한 농가의 경우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가 그룹(B-HH형)에서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농가소득이 연 10% 이상 증가한 농가 중 소득변동 폭이 40% 이상인 농가의 비율을 보면, B-HL형 농가에서는 19.5%인데 반해 B-HH형 농가에서는 24.5%로 더 높다. 농가소득이 연 0~5% 감소한 농가에서도 소득변동이 40% 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B-HL형 농가가 5.1%인 반면 B-HH형 농가는 15.8% 이다. 이와 같이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농가소득 증대에서는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소득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소득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부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가소득 증감률이 동일한 농가들 중 소득변동 폭에서 차이가 있는 농가들의 농가소득 규모와 부채 규모를 보면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

그림 4-5. B-HL형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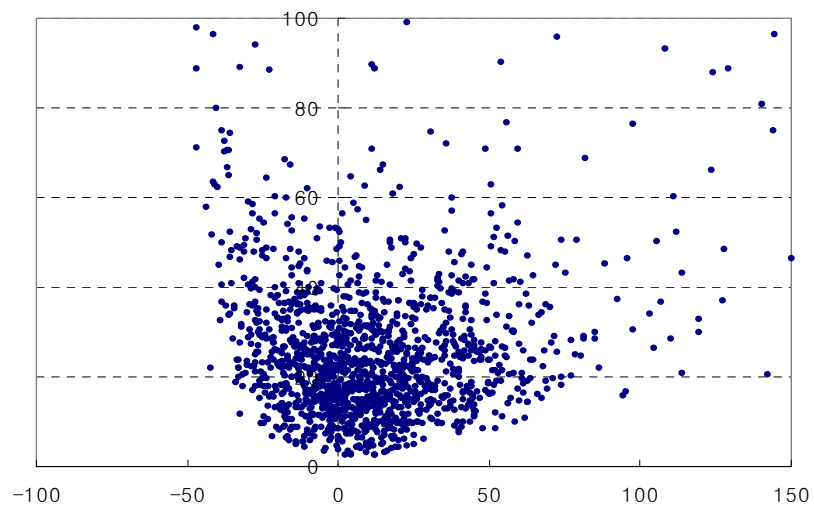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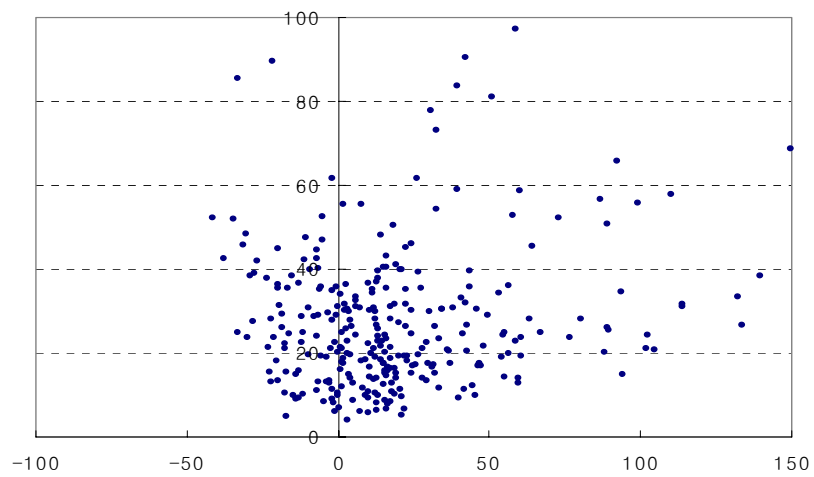


그림 4-6. B-HH형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분포



고 있다. 이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표 4-6>이다. 그러나 대부분에 있어서는 소득변동 폭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이 낮고 농가부채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금흐름이 적자이고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B-LH형)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농가들 중 농가소득이 연평균 0~5% 증가한 농가(B-LH 중 Ⅲ형 농가)를 보면, 소득변동 폭이 40% 이하인 농가의 농가소득은 16,162천원이고, 농가부채는 53,981천원이다. 반면 소득변동 폭이 40% 이상인 농가의 농가소득은 9,332천원이고, 농가부채는 69,908천원으로 상대적으로 더 나쁜 상태이다.

현금흐름이 흑자이지만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B-HH형)의 경우를 보면, 소득변동 폭이 40% 이상으로 높으면 대부분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농가부채가 더 많다. 그러나 이런 농가에서는 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에서는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4-6. 농가 유형(B) 및 소득변동 실태별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단위: 천원

	B-LL		B-LH		B-HL		B-HH	
	소득	부채	소득	부채	소득	부채	소득	부채
I -1	15,597	11,398	15,265	45,102	23,083	9,444	24,324	59,736
I -2	12,881	22,163	7,486	84,688	26,550	15,068	25,665	56,354
Ⅱ -1	15,503	5,553	18,131	39,675	25,294	10,461	26,410	58,742
Ⅱ -2	13,504	12,688	12,744	52,399	25,771	19,792	20,947	34,734
Ⅲ-1	17,548	8,236	16,162	53,981	24,482	10,689	27,446	52,503
Ⅲ-2	12,649	17,919	9,332	69,908	24,310	13,024	21,277	67,445
Ⅳ-1	17,820	14,460	17,985	55,269	25,220	8,266	25,960	47,859
Ⅳ-2	15,683	10,998	2,601	104,753	28,523	22,177	32,475	48,417
V -1	17,093	11,202	15,716	51,098	26,944	13,414	28,078	54,020
V -2	14,219	20,525	14,381	71,428	26,633	14,633	25,414	74,652

농가부채가 많으면 소득변동 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금흐름이 흑자이고 부채 비율이 낮은 농가(B-HL형)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일수록 부채 규모는 더 많지만 농가소득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농가 부채는 그 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의 상태 그리고 부채 비율의 정도에 따라 농가소득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금흐름이 나쁘고,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데 부채 규모가 많으면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농가는 부채규모의 축소가 필요한 상태이다.

3. 농가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앞 절의 분석과 2장의 농가소득 변동분석에서 농가부채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가소득 변동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가소득이 동일하게 증감하였다 하더라도 부채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의 변동 폭이 컸다. 또한 부채 규모가 큰 농가에서는 소득이 크게 증가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농가소득이 오히려 크게 감소한 농가도 있었다. 농가부채 규모에 의한 농가 경제의 위험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농가부채규모가 농가 경제의 변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농가부채 규모별로도 농가소득 변동 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가부채 규모와 자산대비 부채 비율에 따라 농가를 유형화 한 것이 <그림 4-7>이다. 여기에서 농가부채가 3,000만원인 것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3,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 어떤 타당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평균농가의 부채 규모가 2,100만원 정도이므로 이보다는 많으면 부채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어 선택한 것이다. 통상 부채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이면 고액부채 농가로 구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앞의 2절에서 설명한 근거에 의해 40%를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농가를 구분하고, 각 유형별 농가경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표 4-7>이다. 대부분의 농가인 72.5%의 농가는 부채 규모도 적고 부채 비율도 낮은 C-LL형 농가 그룹에 속해 있다. 그러나 여전히 13.6%의 농가는 부채 규모도 크고 부채 비율도 높은 상태(C-HH형)이다.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일수록 임차비

그림 4-7. 부채 규모 및 부채 비율에 의한 농가 유형 구분

	부채비율 40% 이하(L)	부채비율 40% 이상(H)
부채 3천만원 이하 농가 (L)	C-LL	C-LH
부채 3천만원 이상 농가 (H)	C-HL	C-HH

표 4-7. 농가 유형(C)별 농가 분포 및 농가경제 주요지표

단위: 호, 평, 천원, (%)

	C-LL	C-LH	C-HL	C-HH
농가호수	1,703 (72.5)	125 (5.3)	200 (8.5)	320 (13.6)
표준영농규모	4,660	4,045	9,750	7,518
경작규모	4,005	3,722	7,402	6,220
임차면적 (임차비율)	1,601 (40.0)	2,603 (69.9)	3,466 (46.8)	3,377 (54.3)
농가소득	21,948	18,214	32,419	24,078
농업소득 (농업소득 비율)	9,599 (43.7)	7,052 (38.7)	18,814 (58.0)	12,598 (52.3)
농가부채	7,359	20,869	48,091	71,260

율이 높은 상태이고, 부채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시설투자를 확대하여 표준영농규모와 경작규모간의 차이가 크다. 또한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부채 규모도 크다.

부채 규모는 크지만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C-HL형)가 가장 높은 소득을 얻고 있고(32,419천원), 농업소득 의존도도 높다.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농가는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비율도 높은 농가(C-HH형)이다. 부채 규모는 적지만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C-LH형)는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18,214천원 수준이고, 농업소득도 7,052천원으로 농가소득의 38.7%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가부채 규모가 많다는 것이 농가경제의 위험성을 의미하지도 않고, 부채 비율 등 다른 지표와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조건이면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농가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농가부채 규모와 부채 비율에 의해 유형화 한 농가 그룹별 농가소득의 증감 실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표 4-8>이다. 부채도 많고 부채 비율도 높은 농가(C-HH형)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농가에서 소득이 연 10%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

표 4-8. 농가 유형(C)별 농가소득 변동 정도의 농가 분포

단위: 호, (%)

	I 그룹	II 그룹	III 그룹	IV 그룹	V 그룹	합계
C-LL	413 (24.3)	293 (17.2)	269 (15.8)	270 (15.9)	458 (26.9)	1,703 (100.0)
C-LH	27 (21.6)	18 (14.4)	18 (14.4)	32 (25.6)	30 (24.0)	125 (100.0)
C-HL	53 (26.5)	24 (12.0)	28 (14.0)	24 (12.0)	71 (35.5)	200 (100.0)
C-HH	67 (20.9)	36 (11.3)	48 (15.0)	49 (15.3)	120 (37.5)	320 (100.0)

이 37.5%인데, 이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과 1999년에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낮아진 농가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7>에서와 같이 이들 농가의 농가소득은 부채 비율이 낮은 농가(C-HL형)보다도 낮고 농가부채는 많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농가 그룹인 부채는 적으나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도 농가소득 증감률에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가소득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21.6%로 가장 낮고, 연 5~10% 농가소득이 증가한 농가의 비율도 25.6%로 가장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당 평균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것은 초기연도의 농가소득이 크게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농가도 외환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이 높으면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 크게 오면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가 적고 부채 비율도 낮은 농가(C-LL형)의 농가소득 증감률과 소득 변동 정도에 의한 분포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그림 4-8>이다. 그리고 부채도 많고 부채 비율도 높은 농가(C-HH형)의 소득 증감 및 변동 폭에 의한 농가 분포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그림 4-9>이다. 부채가 많고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가 더 양호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C-HH형 농가가 소득이 감소한 농가의 비율도 낮고 소득 변동폭도 적다. 농가부채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도 동일한 증감률로 농가소득이 변동하였다면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이 더 낮고, 부채는 더 많은 실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표 4-9>이다. 연 0~5%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에서는 부채는 많으나 부채 비율이 낮은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이 가장 높다. 부채도 많고 부채 비율

그림 4-8. C-LL형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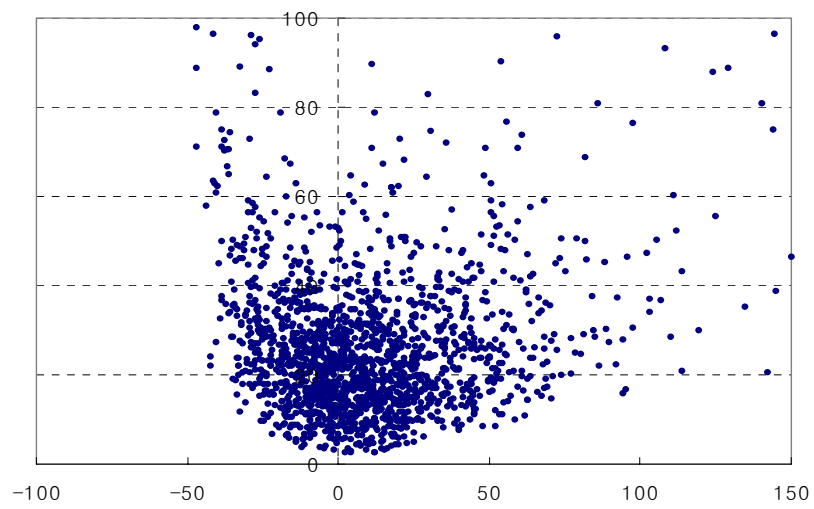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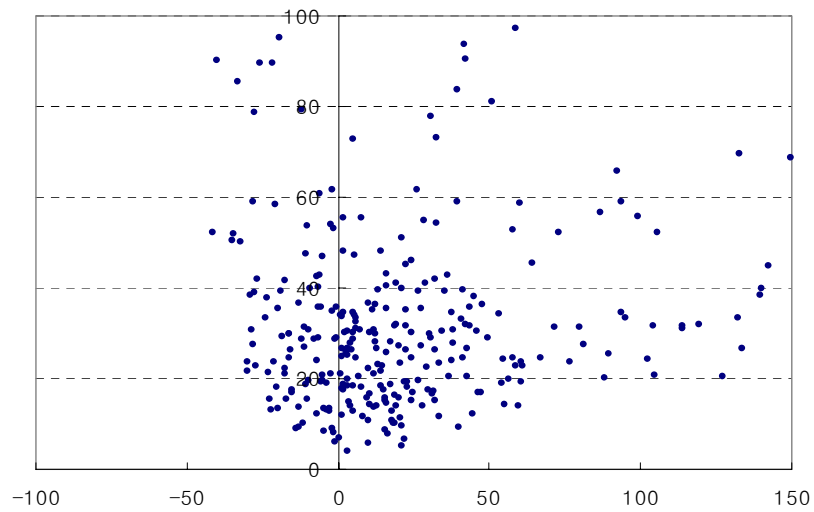


그림 4-9. C-HH형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분포



이 높은 농가에서는 소득변동 폭이 크면 농가소득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이 연 5~10% 증가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자. 그러면 부채는 많지만 부채 비율이 낮은 농가(C-HL형)가 가장 농가소득이 높다. 부채도 많고 부채 비율도 높은 농가(C-HH형)는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에서 농가소득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는 부채관리의 방향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부채가 많은 농가에서는 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부채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 농가 소득 안정에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부채 문제는 자산 규모와 비교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표 4-9. 농가 유형(C) 및 소득변동 실태별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단위: 천원

	C-LL		C-LH		C-HL		C-HH	
	소득	부채	소득	부채	소득	부채	소득	부채
I -1	19,837	6,619	16,476	20,376	32,885	46,017	23,684	72,786
I -2	21,358	10,112	16,436	19,659	22,279	50,438	12,800	89,588
II -1	21,814	6,288	15,753	19,316	38,560	50,621	28,952	73,100
II -2	19,214	8,908	17,885	18,704	26,039	50,067	17,610	47,574
III-1	22,170	7,328	19,508	20,574	34,264	42,584	25,860	65,744
III-2	20,527	7,731	6,937	27,710	21,322	40,654	14,589	77,363
IV-1	23,130	6,307	20,171	19,599	35,599	47,012	28,060	67,812
IV-2	21,090	9,623	29,211	26,546	32,708	58,671	19,714	91,165
V -1	23,516	8,062	19,114	22,288	35,202	47,078	27,167	63,157
V -2	21,388	8,911	10,915	25,057	29,892	55,006	21,123	79,583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농업은 도하개발협상(DDA)과 무역자유화협정(FTA) 등으로 농산물시장의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하여야 하는 시장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가경제의 불안정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IMF 외환위기라는 외부 충격으로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하락하였는가를 파악하고, 어떤 특징의 농가가 더 많이 소득이 감소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얻은 기초 자료는 앞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가경제 안정정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동일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표본 원자료를 농가별로 일치시켜 소득변동을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평균-분산>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평균과 분산의 개념은 농가소득의 변동 과정을 잘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에 대응하여서는 성장률의 평균개념을 적용하였다. 또한 분산에 대응하여서는 농가소득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과의 차이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소득변동

유형별로 농가를 분류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기간에 농가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23.9%이고, 0~5% 감소한 농가는 15.8%, 그리고 0~5% 증가한 농가는 15.5%, 5~10% 증가한 농가는 16.0%, 마지막으로 10%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이 28.9%이었다. 그리고 농가소득 증감률이 큰 농가일수록 소득변동의 정도가 큰 농가가 더 많았다.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는 농업소득이 감소하였고, 반대로 농가소득이 증가한 농가는 농업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농가소득의 변동에는 농업소득 변동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기와 말기의 2년 평균 농가소득에 의한 농가 분포를 보면, 농가소득 3천만원 미만의 농가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3천만원 이상의 농가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의 변동 폭이 큰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았다. 농가소득 변동 폭을 안정시키는 것이 소득증대의 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일한 방법으로 농업소득의 변동 추이를 보면, 농업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은 33.3%이었고, 0~5% 감소한 농가는 14.5%, 그리고 0~5% 증가한 농가는 14.9%, 5~10% 증가한 농가는 10.9%, 마지막으로 10%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은 26.3%이었다. 또한 변동 폭에서도 농가소득보다 농업소득이 더 심한 변동을 보이고 있는 농가가 더 많았다. 이는 농가소득의 증감률에 의한 농가 분포보다 더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농가의 농업소득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기와 말기 2년 평균의 농업소득 규모에 의한 농가 분포를 보면, 농업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농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2천만원 이상인 농가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농업소득에서는 농가 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변동에는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농가소득의 증감률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농업소득이 증감한 농가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가소득의 변동에는 농업소득의 변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년 평균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농업소득이 5백~1천만원 사이의 농가에서는 농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농가의 비율이 64.8%인 반면 농업소득이 1~2천만원인 농가에서는 농가소득이 3천만원 이상인 농가의 비율이 21.0%이다. 그리고 농가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농가 중 농업소득이 3천만원 이상인 농가의 비율이 5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소득 증대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5년 동안 농가소득이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은 전체 2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농가소득 변동그룹별로 보면, 농가소득이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농가 중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이 33.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농가소득이 연평균 5~10% 증가한 농가에서는 18.1%의 농가만이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이었다. 즉,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일수록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더 많고, 농가소득이 증가한 농가일지라도 연평균 증가율이 높으면 오히려 초기 조건이 나빠서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농가소득보다는 농업소득이 가계수지 적자인 농가와 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이나 변동 폭이 적은 소득변동이 안정적인 농가일수록 가계수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농가를 유형화하여 농가소득의 변동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는 어떤 조건의 농가가 상대적으로 외부 충격에 잘 견디는가를 제시하여 준다. 농가를 유형화하는 기준으로는 경영주 연령, 표준영농규모, 가계수지 수준, 자산대비 부채 비율 그리고 부채 규모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향후 농가들의 경영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된다.

먼저 경영주 연령과 표준영농규모에 의해 농가를 유형화하였다. 경영규모가 적고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농가의 평균소득이 가장 낮았고, 경영규모도 크고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하인 농가가 가장 높은 농가소득을 얻고 있다. 그러나 농가소득 변동에서는 경영규모가 크고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농가가 가장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농가소득 증가율이 높은 농가들이 농가소득이 높고, 동일한 소득 증가율이면 소득변동 폭이 적은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이 높고 부채 규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음으로 가계수지 수준과 자산대비 부채 비율에 의해 농가를 유형화하였다. 가계수지가 적자이고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위험한 농가가 6.1%이고, 가계수지가 흑자이고 부채 비율이 40% 이하인 농가는 61.5%이다.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농가는 가계수지가 적자이고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이고,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농가는 가계수지가 흑자이고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이다. 이러한 현상은 농가소득 증감률에 의한 농가 분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계수지가 흑자이고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일수록 농가소득 변동률이 좋은 농가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에서는 부채 규모도 크고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도 많다. 또한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일수록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즉, 부채 비율이 높으면 소득 안정을 위해 부채관리에 더욱 많은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부채 비율과 부채 규모에 의해 농가를 유형화하였다. 부채 규모로는 3,000만원을 적용하였다. 부채 규모가 3,000만원 미만이고 부채 비율이 40% 이하인 농가가 대부분으로 72.5%를 차지하고 있고, 부채 규모가 3,000만원 이상이고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가는 13.6%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농가는 부채 규모

는 적으면서도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이고,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농가는 부채 규모는 많으나 부채 비율이 낮은 농가이다. 부채 규모도 크고 부채 비율도 높은 농가는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이 낮았고, 특히 농업소득이 낮았다. 농가소득의 변동에서는 부채 규모도 크고 부채 비율이 낮은 농가들이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 증가율이 연 10% 이상인 농가가 많다는 것은 역으로 외환위기 때 소득이 크게 감소한 농가가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농가소득 안정정책과 농가경영개선 방향에 대한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농업소득의 변동이 농가소득 변동보다 크다는 것은 농업소득의 안정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소득의 안정 없이는 농가소득의 안정을 이룩할 수 없다. 농가소득 불안정의 요인이 농업소득 불안정에서 크게 기인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농업소득이 크게 하락할 것이므로 농가경제가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소득 하락 위험에 대응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는 농업소득이나 농가소득의 안정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일수록 소득 감소율이 큰 농가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소득 변동 폭이 큰 농가에서 소득 감소율이 높은 농가가 더 많다. 또한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일수록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출현하고 있다. 농가는 소득불안정이 심하면 소비수준을 소득이 높을 때를 기준으로 지출을 하고, 소득이 하락하면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소득의 안정이 가계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소득안정정책으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을 완화하여 주는 것이 가계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셋째는 경영규모가 크고 경영주 연령이 고령인 농가일수록 농가 소득의 불안정이 심하다. 이는 농업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 60세 이상의 농가는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농가는 경영규모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60세 이하의 젊은 농가는 규모화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탈농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대응책이다. 경영규모가 적으면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부채 비율의 관리에 더욱 많은 주의를 하여야 한다. 농가부채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부채 비율이 오히려 농가소득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일수록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가 많고 농가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 부채가 많은 농가라 할지라도 높은 소득수준을 얻는 농가가 있으므로 부채관리는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부채가 많은 농가일수록 농가소득 변동 폭이 큰 농가가 많다. 그리고 부채는 많으나 부채 비율이 낮은 농가가 가장 높은 소득을 얻고 있다. 이는 부채관리를 적절히 잘 하면 부채가 없는 것보다 부채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농가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채를 활용하더라도 자신의 자산규모와 비교하여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영관리 방안이다.

abstract

An Analysis of the Instability of Farm Households Income and Its Causes in Korea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degree of the instable in Korean farm households income and to examine its determinants with the panel data of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in 1998~2002. The size of the panel data set is 2,348 of the identical farm household data. An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auses of instability in farm income, we categorize the farm households with the farm size, the age of farm manager, the financial debt ratio, the degree of income sufficiency for consumption expenditure and the debt size. We made the analysis on the panel data set with the mean-variance analysis method.

The main results in this study are followings. First, the farming income is more unstable than farm household income. This implies that the farm household income would be more unstable when the agricultural market is more opened. It is suitable policy to stabilize farm income. Second, the fluctuation of farming income highly related to the fluctuation of the farm household income. Third, farm households with large debt and high debt ratio are more unstable. Finally, the farm households with the large debt is likelihood to face the low income and the unstable of farm income fluctuation. The unstable of farm economy is more related to the debt ratio to asset than the size of debt. So, it is important task to manage the level of farm debt comparing to the asset.

In the globalization due to WTO and FTA agreement,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will face the risk of the market share declined and also farmers receipted prices declining. The policies to stabilize the farm income such as safety net income and crop

insurance are now more significant measure than any other times. In farm household side, it is a good strategy to reduce the level of farm debt.

Researchers: Hwang Eui-Sik and Moon Han-pil
e-mail Address: eshwang@krei.re.kr, hanpil@krei.re.kr

참 고 문 헌

- 권오상. 1997. “한국 미작농가의 생산기술 분석: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 45(4): 193-226.
- 김석현. 1999. “전남지방 마늘·양파 재배 농가의 효율적 위험관리.” 『농업경제연구』 40(1): 199-219.
- 김성룡, 이계임. 2002. 『농가의 소비지출구조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등. 2002. 『채소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균. 2001. “재해보험과 수입보험에 대한 생산자선호 및 후생효과 비교.” 『농업경제연구』 42(2): 33-50.
- 김태균 등. 2003. “지역 농협 부실화의 요인 분석과 예측.” 200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성재 등. 1999. 『중장기 농가부채대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재 등. 2002. 『농업융합자금제의 비전과 장기 발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평식, 박준근. 2000.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한 수도작 경영 개선방안.” 『농업경제연구』 41(2): 65-89.
- 안병일, 김정호. 2001. “채소경영의 위험 요소와 재배면적 변동.” 『농촌경제』 21(3호): 27-46.
- 오내원 등. 2001. 『경영체별 소득 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내원. 2002. “농가경영안정정책의 체계화방안.” 『농정연구』 4: 97-121. 농정연구센터.

- 이태호 등. 2002. 『농가위험관리와 소득 안정대책의 체계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찬익. 1997. 『농가부채의 구조분석』. 농협중앙회.
- 최양부 등. 1983.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연수. 1999. “소득안정직접지불제의 도입방안.” 『농촌경제』 22(1): 131-148.
- Hyejung, Kang. 2003. “Farm Size Distributions and Returns to Scale in Korean Agriculture.” *AAEA* 발표자료.

연구보고 R464

농가경제 불안정 실태와 요인 분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3. 12.

발 행 2003. 1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평강기획인쇄

전화 02-2263-2332 E-mail: pkang2002@hanmail.net

ISBN 89-89225-54-X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